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여대생의 미의식에 따른 미용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 피부 관리, 체중조절, 미용성형 행동 중심으로 －

2009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 學科

에스테틱 專攻

李 敏 玲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姜京浩

여대생의 미의식에 따른 미용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 피부 관리, 체중조절, 미용성형 행동 중심으로 -

A Study on beauty care behaviors according to aesthetic
consciousness in female undergraduates

- Focusing on skin care, weight control and cosmetic
surgery behavior -

2009年 6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 學科

에스테틱 專攻

李 敏 玲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姜京浩

여대생의 미의식에 따른 미용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 피부 관리, 체중조절, 미용성형 행동 중심으로 －

A Study on beauty care behaviors according to aesthetic
consciousness in female undergraduates

－ Focusing on skin care, weight control and cosmetic
surgery behavior －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6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 學科

에스테틱 專攻

李 敏 玲

李敏玲의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6 月 日

審査委員長 김 수 미 (인)

審査委員 김 민 정 (인)

審査委員 강 경 호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미의식의 개념	5
2. 피부와 피부장벽	6
1) 피부의 정의	6
2) 피부장벽의 정의와 기능	7
3) 피부장벽의 발생	8
3. 비만과 지방조직	9
1) 비만의 정의	9
2) 지방조직의 특성	9
(1) 지방세포	9
(2) 지방조직	10
(3) 지방대사	10
3) 체중 조절의 선행 문헌 연구	11
4. 미용성형 수술	12
1) 미용성형 수술의 정의	12
2) 미용성형 수술의 분류	13
3) 미용성형 수술의 선행 문헌 연구	14
III. 연구방법	16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16

2. 조사 도구 및 측정 문항	16
1) 일반적 특성	16
2) 미의식에 대한 인식	17
(1) 미의식에 대한 조사	17
(2) 미의식별 외모에 대한 인식	17
3) 피부관리, 체중조절, 미용 성형에 대한 미의식별 인식 및 행동	17
(1) 미의식별 피부 인식 및 관리 행동	17
(2) 미의식별 체중조절 인식 및 조절 행동	18
(3) 미의식별 미용성형수술 인식 및 성형 행동	18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9
 IV. 연구결과 및 고찰	20
1.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요인에 대한 분석	20
2. 미의식과 미의식에 따른 외모 인식	21
3. 미의식에 따른 피부에 대한 인식	28
4. 피부 유형 및 피부 관리 행동	31
5. 미의식에 따른 체중 조절에 대한 인식	34
6. 체중 조절 경험 및 체중조절 행동	37
7. 미의식에 따른 미용 성형에 대한 인식	42
8. 미용성형 행동	44
 V. 결론 및 제언	50
 참 고 문 헌	52
설 문 지	57
영문 초록	65

< 표 목 차 >

<표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20
<표 2> 여대생의 미의식(미가치관, 미적 태도)	21
<표 3> 미의식별 외모 중요성, 인간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22
<표 4> 미의식별 외모를 결정짓는 인체 부위	23
<표 5> 미의식별 외모 판단 시 중요한 부분	24
<표 6> 미의식별 외모 자신감	25
<표 7> 미의식별 외모 개선 노력 변화 정도	26
<표 8> 미의식별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27
<표 9> 미의식별 현재 피부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29
<표 10> 미의식별 피부에 대한 관심도	30
<표 11> 미의식별 피부 고민	31
<표 12> 미의식별 체중조절 관심도	35
<표 13> 미의식별 인식하는 비만 부위	36
<표 14> 미의식별 체중조절 노력을 하는 이유	37
<표 15> BMI별 체중조절 경험	38
<표 16> BMI별 체중조절 방법	39
<표 17> BMI별 체중조절 성공 정도	40
<표 18> BMI별 감량 후 체중유지기간, 부작용	41
<표 19> BMI별 감량 후 좋아진 점	42
<표 20> 미의식별 미용성형의 인식	43
<표 21> 미의식별 미용성형수술 여부	44
<표 22> 미용성형 항목에서 한 것과 향후 하고 싶은 것	49

< 그림 목 차 >

<그림 1>	인체 부위별 외모 스트레스	27
<그림 2>	외모 스트레스 해소 방법	28
<그림 3>	연구 대상자의 피부 유형	32
<그림 4>	피부 세안제, 세안 관리 행동	32
<그림 5>	피부 스크럽, 마사지, 기능성화장품, 관리실 이용 행동	34
<그림 6>	미용성형수술 이유	45
<그림 7>	미용성형수술 정보 획득처	45
<그림 8>	미용성형수술 영향자	46
<그림 9>	미용성형수술 결과 만족도	46
<그림 10>	미용성형수술 후 주위 반응	4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기호는 변해도 미적 본능은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많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문화의 발달에 비례해서 미의 개념이 모든 여성들에게 일반화 되어감에 따라 신체 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외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고혜정, 1996).

오늘날 미용은 하나의 예술로서 화장, 모발의 모양, 피부손질, 손발톱의 손질 등, 여러 가지를 잘 조화하여 전체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인간 생활에 하나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양숙희, 2007). 특히 신체 외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의상의 변화를 주며 색조화장을 기술적으로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선택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피부 관리라고 할 수 있다(박수진, 2002).

피부는 인체 내부의 여러 증상을 표현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고 정신적 상태, 생활습관의 반사경이라 할 수 있다. 오장 육부의 상태를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편안함이나 스트레스 등이 드러나 보이기도 하며 생활 리듬이 깨졌을 때에도 피부를 통해 신체의 리듬이 깨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피부에 대한 관리는 건강하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기 위한 것으로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건강의 진단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인간의 보다 아름다운 삶의 유지하기 위한 미적 욕구에 가장 기본적인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동으로 체중조절 행동을 들 수 있다. 먹을 것이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살이 어느 정도 찌고 배가 나오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으나 요즘에는 살이 찌는 사람은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자기에게도 무책임한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멸시와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안정덕, 2000). 즉 살이 찌

사람은 현대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체중에 대한 관심도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미적 의식에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으며, 마른 몸매를 추구하는 사회 풍토로 인해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다(박희숙, 1998).

체중 조절에 대한 욕구는 적절한 식품 섭취 방법과 운동을 습관화시키는 행동 수정을 통하여 바람직한 체중을 평생 동안 유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체중 감소를 위해 비효과적이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기초 대사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실패로 체중 변동이 심해져 개인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인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손춘영, 1997).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체중 조절 행동이 여성에게는 잠재적으로 건강에 해(害)를 줄 수 있는 동기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 사회 진출을 앞둔 여대생들도 건강한 아름다운 체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체중 조절 방법의 인식이 필요하게 되었다(한성호, 2003).

또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은 '물질만능주의'와 더불어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기업의 사원 채용 시 여성 응시자의 신체 조건에 제한을 둔다거나 능력보다는 외모 위주로 채용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취업에 직면한 여성들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자신의 외모에 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부합하기 위한 현대 여성의 두드러진 미적 행위의 특징으로 태어나면서 주어진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인체의 변형을 통해 해결하려는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한 행동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성형 수술은 기존의 치료의 차원보다는 외모를 가꾸고자 하는 미용의 수단으로 변화 하고 있는 것이다(엄현신, 2007). 즉 인체의 외적 변형으로 외모의 아름다움에 변화를 주어 보다 나은 외적 만족을 보이려는 노력인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 진출을 앞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미의식의 인식에 따른 피부 관리 인식 및 특성, 체중 조절 인식 및 특성, 미용 성형 인식과 관련된 특성을 알아보고 그들의 미용 행동을 파악하여 여대생들의 건강한 미용 관리 행동과 외적 관리 행동에 대한 올바른 사전 교육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여성들의 미에 대한 관심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의 외모는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거의 절대적인 지표가 되고 있으며,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는 현대 여성들의 미의 추구는 목표이며 이상이다.

현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아름다운 피부, 날씬한 몸매, 이상적인 인체 구조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시간과 비용투자는 높아지고 있다.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여대생들에게도 적극적인 행동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미에 대한 욕망이 더욱 커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금의 여대생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피부 관리 행동 및 체중 조절, 미용 성형에 대한 행동 실태를 바탕으로 건강한 미용 관리 행동과 외적 관리 행동에 대한 올바른 사전 교육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대생을 대상으로 미의식을 미가치관과 미적 태도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2. 여대생을 대상으로 미의식(미가치관, 미적 태도면)에 따른 피부, 체중조절, 미용 성형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다.
3. 여대생을 대상으로 미용 관리 행동인 피부 관리, 체중 조절, 미용 성형 행동실태를 통해 조사한다.

3.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여대생들의 미의식(미가치관, 미적 태도)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여대생들의 미의식(미가치관, 미적 태도)을 통한 외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여대생들의 미의식(미가치관, 미적 태도)에 따른 피부 인식 및 피부 관리행동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4. 여대생들의 미의식(미가치관, 미적 태도)에 따른 체중 조절 인식 및 체중조절행동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5. 여대생들의 미의식(미가치관, 미적 태도)에 따른 미용 성형에 대한 인식과 미용성형행동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미의식의 개념

미(美)에 대한 개념은 생활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겠으나 쾌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Herbert Read에 의하면, 「미(美)란 우리의 감각적 지각에 의한 형식상의 여러 관계의 통일이라는 물리적인 정의만이 유일한 정의이며, 이 기초 위에 우리는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예술 이론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이규성, 1998). 즉, 오감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자각하고 인간에게 좋은 느낌을 주어 여러 가지 미적 행동을 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미의식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미적 태도에 있어서의 의식 과정을 의미하고, 철학적 관점에서는 미적 가치에 관한 직접적인 체험을 의미하며(미학사전, 1965), 미적인 것의 창조, 관조 등 미적 태도 일반에 관한 정신 활동 등으로 정의했다(세계 철학 대사전, 1988).

이와 같이 미의식의 개념은 미적 내용을 창출해 내는 정신활동을 뜻하는 창조적인 측면(미적 대상을 제작하는 디자이너의 조형 의지)과 미적 내용을 관찰하고 느끼는 향수를 뜻하는 관조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게 된다. 즉 미의식은 표현된 미적 대상을 사용하고 관찰하는 미적 감식인 '미 가치관'적 심리적 측면과, 미적 활동을 창조적으로 제작하는 '미적 태도'의 철학적인 측면의 두 가지 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미의식은 결국 미에 대한 마음의 상태 내지 미적 태도, 미에 대한 가치관, 미에 대한 사상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지각되는 의식은 물론 잠재적 무의식까지 포괄하므로 미의식의 내포는 확대된다(엄현신, 2007).

미적 체험, 미적 태도, 미가치관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같은 개인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활환경과 경험의 축적은 미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간이 중심

이 된 풍토와 역사, 사회 집단 속에서 오래 동안 공동생활을 영위한 민족은 개인적인 미의식의 상위성을 뛰어넘는 공통성, 곧 동일 취향성을 형성하고 민족 미학의 성립 기반과 계기를 제공한다(오주영, 1998).

또한 미를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적 대상의 형상적 재미의 심미성을 강조한 것에서부터 인간의 내욕과 사회성까지도 미의 한 요소로 보는 점이다(김익달, 1970). 단편적인 의미로서의 미가 아니라 인간자체에 내재된 외재적, 내재적 혹은 심미적, 사회적 성질이 혼합된 본질적인 가치 체계를 이루는 총체적인 요소들에 대한 사고의 결과를 임의 요소로 본다면, '미'란 시간과 공간이 달라짐에 따라 기준과 가치가 달라진다(강신, 2004).

이와 같은 변화는 미의 공간 속에서 유기적인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 미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미의 본질이 변화함에 따라 구체적 개념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신승엽 외 역, 1998).

미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흐름과 함께 변해오는 것으로 내재된 미의 본질에 대한 정의 또한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 사회, 문화 등을 포함한 사실적 경험이 빛이나 명암이나 색, 형태 등과 같은 요소에 포함되어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상태라 할 수 있다(오병남, 1998).

본 연구에서는 미의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미의식을 심리적인 측면인 '미의 가치관'과 철학적인 측면인 '미적 태도'의 두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미의식의 두 가지 요인별 피부 관리에 대한 인식, 체중 조절에 대한 인식,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을 알고, 여대생들의 미용 관리 행동을 연구하고자 한다.

2. 피부와 피부장벽

1) 피부의 정의

피부(skin)는 인체의 최외부를 감싸고 있으며 끊임없이 재생하는 조직

이다. 각질층의 낮은 투과성과 물리적인 장벽기능은 인체를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부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김복희, 1998). 이것은 우리의 생명 보존에 절대 불가결한 것이며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과 연륜을 말해주므로 나무의 나이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부는 외부의 주변 환경의 수많은 세균들과 공해 속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외부의 압력, 충격, 마찰로부터의 보호 기능은 물론 화학적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인체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피부를 외적요소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영양 섭취, 적절한 휴식 등으로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힘쓰면서 자신의 피부에 알맞은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황정원 외, 2004).

또한, 현재 건강한 피부를 지니고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며, 심리적, 영양적, 외부 환경적, 생화학적인 여러 요인들에 의해 피부는 쉽게 거칠어지고 손상될 수 있으므로 끊임없는 노력과 건강한 피부를 가꾸기 위한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김문주, 2003).

2) 피부장벽 정의와 기능

표피에는 물, 전해질 및 기타 여러 물질들의 투과를 통제하는 장벽이 있으며, 이를 피부장벽(skin permeability layer)이라 한다(이승현, 2004).

이 장벽은 표피의 가장 겉층인 각질층의 세포와 세포간질로 이루어진다. 10-12 세포층으로 이루어지는 각질층은 기저부와 중간부를 이루는 치밀층(stratum compactum)과 표층부를 이루는 분리층(stratum disjunctum)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치밀층은 세포가 교소체에 의해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 치밀층이 피부장벽으로서 작용한다. 이곳에서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세포 성분이 아닌 세포간질이다.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

진 세포 성분에 비해 세포간질에는 지질이 많으며 이것이 장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박형우, 2003).

이 지질은 유극층과 과립층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층판소체에서 유래한다. 세포질에서 극성 지질은 지질원판(lipid disk)의 형태를 이루면서 막에 둘러싸여 층판소체를 형성하여 과립세포가 각질층에 도달하면 층판소체의 이중막이 원형질막과 융합되어 내용물이 세포간질로 배출되며, 이때 지질원판의 주변부가 서로 융합하여 여러 층의 연속된 막 계통을 형성한다(이승현, 1999).

이런 피부장벽은 피부 밖으로 수분과 전해질의 소실을 억제하는 장벽의 역할과 표피의 건조를 막고, 표피가 정상적인 생화학적 대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외부의 물리적 손상과 화학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이 피부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Feingold KR, 1997; Elias PM, 1983; 이승현, 1992; Lee SH, 1995).

3) 피부장벽의 발생

피부장벽은 개체가 외부의 위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생 직전에 성숙된 피부 장벽을 가져야 한다. 정상적인 신생아의 경우 출생 시 이미 성숙된 피부장벽을 형성하여 정상 성인과 같은 정도의 낮은 경피피수분손실(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을 보인다. 그러나 미숙아(< 33 wk)의 경우 미성숙 정도에 비례하여 TEWL이 증가되어 있으며 경피흡수도 증가되어 있다(Nachmal RL, 1971; Hammarlund K, 1980; Rutter N, 1979). 이들 미숙아의 피부장벽은 출생 후 공기에 노출 시(air exposure) 빠르게 회복되어 성숙한 피부장벽을 형성한다(Komuves LG, 1999). 특히 28주 이전에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 불완전한 피부장벽은 저체온증, TEWL 증가에 의한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경피감염(transcutaneous infection)의 원인이 되며 열손실에 의한 칼로리 소모를 가져온다(Williams ML, 1998).

태아에서 각질화(cornification)는 태생 14-15주에 모낭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태생 24주에 모든 표피에 각질화가 이루어지고 임신 3기가 되면 각질층을 포함한 전층의 표피층에 다층화가 이루어진다(Carlidge PHT, 1992). 출생 후 피부장벽은 각질층 내에 여러 층의 친지성 막구조를 보이는 각질세포간 지질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 각질세포간 지질은 성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ceramides, cholesterol, 그리고 free fatty acids로 이루어지며 각질층과 과립층 사이에서 층판소체의 분비에 의해 형성된다(이승민, 2001).

3. 비만과 지방조직

1) 비만의 정의

비만이란 인체 내에 과도한 지방의 축적을 의미하며,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열량 수급의 불균형이 그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거나 피부주름의 두께나 BMI(Body Mass Index) 등으로 비만을 측정하기도 한다. BMI측정치로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체지방이 3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비만으로 간주하며, 남자는 25퍼센트 초과한 경우 비만으로 판정한다. 이 수준에 이르면 초과지방이 건강과 관련된 위험을 초래하게 되기도 한다(김현수, 1995). 비만인 경우 Cellulite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비만이 아닌 경우에도 Cellulite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2) 지방조직의 특성

(1) 지방세포(Adipose cell, Adipocytes, Fat cell)

지방세포는 지방을 저장하며 열을 생산하는 결합조직 세포이다(Cormack DH, 1991).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은 주로 triglycerides, 즉 글리세린과 세 개의 지방산의 에스테르화합물로서 흔히 중성지방이라고도 한다. Triglyceride의 성질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에 의해 결정된다. 지방세포의 세포질내에는 중성지방이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방세포 한 개의 직경은 $70\mu\text{m}$ 에서 $120\mu\text{m}$ 정도이다(이순혜, 2000).

지방으로 차있는 단순지방세포에서 세포질은 지방에 밀려 한 쪽으로 물리게 되어 납작해지며, 그 폭은 겨우 $1\mu\text{m}$ 에서 $2\mu\text{m}$ 정도로, 생김이 흡사 보석 알이 박힌 반지 같다. 세포소기관인 중에서 열량을 연소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가 특히 지방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김현수, 1995).

(2) 지방조직(Adipose tissue)

지방조직은 지방세포가 주성분을 이루는 결합조직으로서 남성의 경우 체중의 15~20%, 여성의 경우 체중의 20~25%를 차지하고 있다.

각각의 지방세포들은 세망섬유에 의해서 거미줄처럼 둘러싸여 있으며(Leeson CR, 1881), 느슨한 결합조직사이에 단독으로 또 작은 그룹(지방소엽)으로 흩어져 자리잡고 있으며 느슨한 결합조직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느슨한 결합조직의 세포간질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콜라겐 섬유, 엘라스틴 섬유, 세망섬유들의 단백섬유들이고, 다른 한 종류는 조직의 빈속을 채우고 있는 젤리와 같은 무정형의 기질들이다. 이 조직은 아주 섬세하고 유연하며 외부의 압력에 저항성이 약한데 단백섬유들이 그물처럼 생겼다 하여 소실조직(areolar tissue)이라고도 한다(박희숙, 1998).

조직세포는 주로 섬유아세포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비만세포, 대식세포나 다른 종류의 세포들도 존재한다(Junqueira LC, 1992). 이 조직에는 특히 지방소엽들 사이에 모세혈관이 풍부하게 그물처럼 분포되어 있다.

(3) 지방대사(Adipose metabolism)

지방구세포는 호르몬수용체로 지방분해 메세지(message lipolysis) 또는 지방합성 메세지(message lipogenesis)에 따라 각각 다른 대사를 수행하게 된다.

신체 내 과잉 에너지는 중성 지방의 형태로 합성하여 지방구세포내에 저장하고 반대로 성장기, 추위, 근육운동 등으로 에너지가 부족할 때에

는 저장했던 지방을 지방분해 대사를 통해 배출하게 된다(김연희, 2001). 이때 지방구세포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key enzyme이 다음과 같이 각각의 대사를 조절하게 된다.

LPL(lipoprotein-lipase)는 지방구세포막에 존재하며 지방합성대사에 관여한다. LPL은 혈액순환을 통해 운반되어 온 지방을 가수분해하여 지방산의 형태로 지방구세포내로 유입시키고 이 지방산은 산화, 에스테르화 과정을 거쳐 중성지방(Triglyceride)의 형태로 저장하게 된다. 이때 인슐린은 LPL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TGL(triglyceride-lipase)는 지방구세포내에 존재하며 지방분해대사(lipolysis metabolism)에 관여한다. TPL이 활성화되어 저장되어 있던 중성지방을 지방산의 형태로 분해하여 지방구 세포외로 배출한다(김순혜, 2000).

3) 체중 조절의 선행 문헌 연구

최신 의료 대백과 사전(1992)에서 말하는 체중 조절이란 미용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규정식 또는 식이요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체중 조절 전문가들은 전형적으로 체중 조절 행위를 식(食)행동으로 보고 있다.

신미영(1997)은 체중조절을 체중 감소를 위하여 생식을 제안하는 행동과 인지적 노력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고, 한오수(1991) 등의 연구에서는 체중조절을 위하여 음식섭취를 제안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식이절제(食餌節制)라 정의 하였다. 더 나아가 몇몇 응답자들은 체중 조절을 실제 행동이 아닌 체중 감소를 원하는 욕망으로까지 보기도 한다(Nummmark-Sztainer et al., 1998).

체중 조절과 관련된 시행여부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김혜원·백화정, 1996), 경향 신문에서 1995년에 조사한 체중 조절 경험의 설문에서는 우리나라 미혼 여성의 63%, 기혼 여성의 68%는 자신의 몸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여성의 70%에서 체중 조절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향신문, 1995년 2월 20일).

이러한 경향은 여중생, 여고생, 여대생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선행 연구가들의 연구 논문 결과에서는 비만군 뿐만 아니라 정상군 심지어 저체중군에서조차 스스로를 비만이라 인식하고 있었으며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도 무척 높았다. 양경미(2002)에서도 비만군의 50.00%, 정상군 59.13%, 저체중군 31.94%가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은 군에서의 다이어트 경험도 매우 높았다.

김옥수(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체중감소를 위한 체중조절 행위에서는 식사조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운동, 특수식이 약물사용, 기타 방법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식사조절 방법으로는 주로 굶기, 식사량 감소, 간식 안먹기 등이 있었고 주로 점심, 저녁식사를 많이 굶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중감소를 위해 식사대신 과일이나 야채만을 이용한 다이어트, 물만 마시는 물 다이어트 등도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김들연 1995, 김용주 1998, 류효경 1998).

이렇듯 체중 감소의 방법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열량 섭취를 제한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식욕억제제, 이노제, 다이어트 식품의 남용, 단식, 사우나 등의 방법을 사용 할 경우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김경원, 1998).

4. 미용 성형 수술

1) 미용 성형 수술의 정의

미용 성형 수술(Cosmetic surgery)은 사전적 의미로 미용목적으로 얼굴이나 체형을 수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피부와, 그 밑에 있는 근과 골격에 결손 또는 변형이 있을 때 그 형태는 물론이고 기능도 개선해주는 외과의 한 분과라 정의 할 수 있다(강진성, 1995).

성형 수술(Plastic Surgery)은 초기에는 주로 전쟁 포로나 죄인에 대한 별로 코가 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코를 재건 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에 성형 수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의학

분야의 하나로 알려 지고 있다.

'Plastic'이라는 말도 희랍어의 '푸라스치고스(Plastikos)' 라는 형용사에서 온 것이다. 이 푸라스치고스라 하는 것은 '푸라세인(Plassein)'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mould 즉, 형을 만든다, 물건을 만든다는 뜻이다. 이것은 1세기경에는 Plasticus라고 라틴어 속에 보이며 르네상스 때에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보통 쓰는 말로 되어 있었다. 이때에 유명한 이탈리아의 성형외과의 Tagliacozzi(1582)가 많은 수술 방식을 'De curtorum chirurgia per insitionem'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성형 수술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이미희, 2001)

이와 같이 미용 성형 수술은 외모의 재건 성형(Reconstructive Plastic Surgery), 교정 성형(Corrective Plastic Surgery), 미용 성형(Aesthetic, Cosmetic Plastic Surgery)으로 나눌 수 있는 외과적 처치 즉, 교정술로 현재는 성형외과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 특히 여성의 모습을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기 한 미용 성형의 수술법이 현재에는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해지고 있다.

2) 미용 성형 수술의 분류

미용 성형 수술의 종류를 크게 얼굴 성형, 피부 성형, 가슴 성형, 주름 제거, 체형 보정의 5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대한성형외과 학회지, www.plasticsurgery.or.kr).

얼굴 성형의 수술 부위별 세부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눈 성형에 대한 쌍꺼풀 수술(절개법, 매몰법), 앞트임, 뒤트임, 눈 밑 애교, 눈썹이식, 눈매 교정술이 있다. 두 번째로 코 성형은 용비술, 코끝 성형술, 매부리코 교정술, 복 코 교정술, 흰 코 교정술이 있으며, 세 번째로 입술 성형의 경우 입술의 확대 또는 축소술이 있다. 마지막으로 안면 윤곽 수술은 돌출입 교정, 광대뼈, 사각턱 축소술, 미세지방 주입술, 이마나 턱 보형물(실리콘, 고어텍스) 교정술 등이 있다.

피부 성형의 수술 부위별 세부 사항으로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 여

드름 치료, 반영구 화장, 문신제거, 흉터제거, 주름 제거 등의 수술법이 있다.

가슴 성형의 수술 부위별 세부 사항으로는 식염수 팩, 실리콘 팩, 지방 주입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가슴 확대 수술과 가슴 축소 수술, 처진 가슴을 올려주는 가슴 거상 수술, 함몰 유두 교정 수술 등이 있다.

주름 제거 수술의 부위별 세부 사항으로는 안면 거상술 및 레이저 시술이 있으며 보톡스, 매직리프트, 필러 미라클리프 등의 주름 보정에 관한 주입을 통한 주름 제거수술이 있다.

체형 보정 수술의 부위별 세부사항으로는 전신 및 부분적 부위의 과다한 지방을 축출하는 지방 흡입술과 종아리 근육에 대한 콤플렉스를 해소하는 근육 제거술 등이 있다.

기타 미용 수술 세부사항으로는 액취증(암내)수술, 보조개 수술, 애교 수술, 배꼽성형, 화상 상처 치료 수술, 점 제거, 제모술, 모발의식, 얼굴과 손, 가슴의 부위에 지방을 주입하는 지방 주입술이 있다.

3) 미용 성형 수술의 선행 문헌 연구

사회적 인식 변화와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한 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이를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해 고찰하기 위한 연구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박연옥(200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용 성형 수술의 실태와 인식을 알아보고 미용 성형 수술을 경험한 사람들과 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구매의사결정시 요구되는 조건이나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첫째, 미와 성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성형에 대한 의향성(意向性)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와 성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성형에 대한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형에 대한 수용성(受容性)이 의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형에 대한 수용성이 기대만족감(期待滿足感)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형에 대한 의향성이 기대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의료 서비스

의 선택요인이 성형에 대한 의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연옥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성형 수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한 의향성과 수용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구매의사 결정과 기대 만족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미란(2004)은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인식, 미용 성형 수술의 필요성 및 긍정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외모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한 필요성 및 긍정도에서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꼭 해야 하는 수술이라고 답해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연령대에 따른 미용성형수술의 필요부위에 대해 동성간에 피부와 관련된 미용 성형 수술을, 이성간에는 남자 대학생은 20대 이상의 눈과 관련된 미용 성형 수술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대학생들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정보수집 경로는 인터넷(51.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미란의 연구를 통해 미용 성형 수술의 주 수요층인 대학생들은 외모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미의식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피부 관리, 체중조절, 미용 성형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설문지는 경기도 소재 A대학, Y대학, S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 450명을 추출하여 2009년 3월 15일부터 3월 31일 까지 16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대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연령층으로 중고교 때의 규칙적, 총체적인 생활에서 자유로운 생활 형태를 가지게 되는 시기와 동시에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어 외적인 미에 대한 추구가 왕성한 시기이므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450부를 배포하여 411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설문지의 질문에 3/2이상 미 기입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401부를 바탕으로 미용 관리 행동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2. 조사도구 및 측정문항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미의식에 대한 인식, 신체 부위별 외모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 대한 인식, 피부 관리 행동, 체중 조절 행동, 미용 성형 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5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 중 일반적 특성은 연령, 신장, 체중, 거주 형태, 흡연유무, 음주유무, 한 달 용돈으로 구성된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체중 조절 행동의 기초 자료 사용한 BMI 측정에 사용하여 체중조절 행동을 살펴보는데 이용하였다.

2) 미의식에 대한 인식

미의식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은 이연미(2003), 엄현신(2007)의 선행 연구의 미의식에 대한 문항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다.

(1) 미의식에 대한 조사

여대생들의 미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미적 대상을 사용하고 관찰하는 심리적 측면인 '미가치관'에 대한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한 외모의 비중' 질문을 1문항 선정하고, 미적 활동을 창조적으로 제작하는 철학적 측면인 '미적 태도'에 대해 미용관리 경험 1문항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2) 미의식별 외모에 대한 인식

미의식별(미가치관, 미적태도)에 대한 외모에 대한 인식의 분석을 위해 8문항을 선정하여, 미의식별 외모에 대한 중요성, 외모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름다운 외모 결정을 위한 인체 부위별 요인, 타인 외모 판단 시 주요 부위, 자신의 외모 자신감, 외모 개선 노력에 따른 변화 정도,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인체 부위별 외모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한 문항을 5점 척도로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3) 피부 관리, 체중조절, 미용 성형에 대한 미의식별 인식 및 행동

피부 관리 행동 및 체중 조절 행동에 관한 문항은 강봉석(2006)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다.

(1) 미의식별 피부 인식 및 관리 행동

피부 관리 의식을 미의식별(미가치관, 미적 태도)을 알아보기 위해 피

부건강 상태 인식, 피부에 대한 관심도, 피부 고민을 선정하였고, 피부 관리 행동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피부 유형, 피부 관리 행동과 관련된 특성(세안방식, 이중세안, 클렌징 종류, 스크럽 사용주기, 얼굴 마사지 주기, 얼굴 팩 주기, 자외선 차단제 및 영양크림, 아이크림 사용 유무, 전문 피부 관리실 이용 실태)을 알아보기 위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미의식별 체중조절 인식 및 조절행동

체중조절 인식을 미의식별(미가치관, 미적 태도)을 알아보기 위해 체중 조절 관심도, 비만 부위에 대한 인식, 체중조절을 하는 이유, 체중 조절 경험 시 사용한 방법에 대한 문항을 선정하였고, 체중 조절 행동 실태 조사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체질량지수인 BMI를 군별로 나누어, 체중 조절 유무, 체중 조절 방법 및 성공 유무, 감량 체중 유지기간, 체중 조절 후 부작용, 좋아진 점, 효과적인 체중 조절 방법의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미의식별 미용 성형 수술 인식 및 성형 행동

미용 성형 행동에 관한 문항은 엄현신(2007)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구성 하였다.

미용 성형 수술을 미의식별(미가치관, 미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미용 성형의 필요성, 미용 성형 수술 여부에 대한 문항을 선정하고, 미용 성형 수술 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 부위별 미용 성형 수술(눈성형, 코성형, 입성형, 피부성형, 얼굴 윤곽 교정 수술, 유방성형, 지방 흡입술, 보톡스)의 8개 영역의 32개 항목에 대한 미용 성형 수술 실태 및 향후 미용 성형 수술 기회가 주어질 경우 수술 하고 싶은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미용 성형 수술을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미용 성형 수술 이유, 미용 성형 정보 획득처, 미용 성형 수술 영향자, 수술 후 만족도 및 주위 반응에 대한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3.0을 사용하여 통계적 자료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5%로 검증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 통계적 요인과 실태분석을 위하여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미의식과 BMI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 중 체중 조절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만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비교적 정확히 반영 할 수 있고 매우 간단히 조사할 수 있는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중/신장²)를 이용하여 비만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BMI를 측정한 결과 경도, 고도 비만군의 대상자 수가 적어 비만군은 1개의 군으로 구성하였다.

산출된 BMI지수는 다음과 같이 4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체질량 지수(BMI) 분류표>

분 류	판정 기준
저체중군	18. 5 미만
정상 체중군	18.5 ~ 23 미만
과체중군	23 ~ 25 미만
비만군	25 ~ 35 미만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대상자의 401명 중 연령은 20세가 40.6%로 가장 많았고, 거주 형태는 통학이 79.3%로 가장 많았다. 흡연여부에서는 '아니오'가 70.6%, 음주여부에서는 '예'가 80.8%로 나타나 음주율이 흡연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달 용돈은 10-20만원이 32.7%로 가장 많았고, 체질량 분석(BMI)에서는 정상 체중이 66.1%로 과반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구 분		인원(N)	비율(%)
BMI	저체중	78	19.5
	정상	265	66.1
	과체중	34	8.5
	비만	24	5.9
연령	19세이하	48	12.0
	20세	163	40.6
	21세	155	38.7
	22세 이상	35	8.7
거주형태	자취	31	7.7
	기숙사	43	10.7
	하숙	1	.2
	통학	318	79.3
	기타	8	2.0
흡연여부	예	118	29.4
	아니오	283	70.6
음주여부	예	324	80.8
	아니오	77	19.2
한달 용돈	10만원 미만	82	20.4
	10-20만원	131	32.7
	20-30만원	100	24.9
	30-40만원	57	14.2
	40만원 이상	28	7.0
	미응답	3	.7
합계		401	100

2. 미의식과 미의식에 따른 외모 인식

1) 미에 대한 의식(미가치관, 미적 태도)

'사람의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외모의 비중'을 미가치관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401명 중 '외모 비중이 60-80%'가 55.4%로 가장 많았고, '외모 비중 90%이상', '외모 비중 50%', '외모 비중 10-40%'순으로 아름다움이 외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답변이 75%이상 조사되었다.

또한, '외모 관리 행동 경험(피부관리, 체중조절, 약물복용, 운동, 미용성형, 화장)'의 미적 태도를 조사한 결과 외모 관리 행동 경험 중 1개를 실시한 군이 24.9%로 가장 많았고, 3개경험군, 2개경험군, 4개경험군, 5개 이상 경험군의 순으로 여대생 99%이상이 외모관리행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런 결과는 엄현신(2007)의 20대 여성은 내면보다 외모의 비중이 높으나, 30~50대 여성의 경우 내면을 더욱 중요시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성을 보였다.

<표 2> 여대생들의 미의식(미가치관, 미적 태도)

구 분	인원(N)	비율(%)
미 가치관	10-40%	3.5
	50%	19.7
	60-80%	55.4
	90%이상	21.4
미적 태도	1개	24.9
	2개	20.2
	3개	23.4
	4개	18.7
	5개이상	12.7
합계	401	100

2) 미의식별 외모중요성 및 외모가 인간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자의 미의식별 외모 중요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3>, 미(美)가치관에서는 유의수준 0.1%에서 차이를 보여 '미(美)가치관 90%이상'이 M=4.45로 가장 높고, 미적 태도에서는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여 '5개 이상경험군'이 4.16으로 미의식이 높아질수록 외모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의식별 외모가 인간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가치관에서는 유의수준 0.1%로 '미(美)가치관 90%이상'에서 3.95로 높고, 미적 태도에서도 유의수준 5%에서 차이로 '4개 경험군'이 3.8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인 민병두(2003)의 미의 척도가 높고, 직장생활을 하는 집단일수록 외모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중요하다는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미의식별 외모 중요성, 외모가 인간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인원(N)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외모 중요성	미 가치관	10-40%	14	3.46	.66
		50%	79	3.71	.56
		60-80%	222	3.99	.67
		90%이상	86	4.45	.63
	미적 태도	1개	100	3.87	.76
		2개	81	3.93	.72
		3개	94	4.11	.67
		4개	75	4.11	.56
		5개이상	51	4.16	.65
	합계	401	4.02	.69	
외모가 인간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미 가치관	10-40%	14	3.50	.85
		50%	79	3.25	.78
		60-80%	222	3.63	.89
		90%이상	86	3.95	.75
	미적 태도	1개	100	3.45	.91
		2개	81	3.49	.90
		3개	94	3.64	.77
		4개	75	3.87	.83
		5개이상	51	3.75	.84
	합계	401	3.62	.86	

■ : p<.05, ■■■ : p<.001

3) 미의식별 아름다운 외모 결정 요인(인체 부위별)

미의식별 외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4>, 미(美)가치관에서만 유의수준 0.1%를 보여 '얼굴'의 응답자는 '미(美)가치관 90%이상'이 51.2%로 가장 높고, '몸매'의 응답자는 '미(美)가치관 60-80%' 22.1%로 높으나 반면, 미(美)가치관 10-40%'에서 '마음씨'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가치관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미가치관이 낮을수록 사람의 내면을 높이 판단하는 것이다.

<표 4> 미의식별 외모 결정짓는 인체 부위

구 분		미가치관					미적태도					합계
		10 -40%	50%	60 -80%	90% 이상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외모 결정짓 는 가장 중요한 요인	얼굴	N	3	25	110	44	47	39	43	35	18	182
		%	21.4	31.6	49.5	51.2	47.0	48.1	45.7	46.7	35.3	45.4
	몸매	N	3	13	49	15	22	15	19	10	14	80
		%	21.4	16.5	22.1	17.4	22.0	18.5	20.2	13.3	27.5	20.0
	마음씨	N	6	12	17	4	10	13	8	7	1	39
		%	42.9	15.2	7.7	4.7	10.0	16.0	8.5	9.3	2.0	9.7
	피부	N	1	23	41	21	18	11	19	20	18	86
		%	7.1	29.1	18.5	24.4	18.0	13.6	20.2	26.7	35.3	21.4
	기타	N	1	6	5	2	3	3	5	3		14
		%	7.1	7.6	2.3	2.3	3.0	3.7	5.3	4.0		3.5
합계		14	79	222	86	100	81	94	75	51	40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39.71■■■■					22.68					

■■■ : p<.001

4) 미의식별 타인 외모 판단 시 중요 부위

미가치관과 미적 태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통계 분석 결과 전체적 조화가 58.3%로 가장 높고, 얼굴 26.9%, 피부 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이는 <표 4>의 '사람의 외모 결정 요인'의 결과에서 도출된 주요 인체

부위 순서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며, 기존의 10~30대 여성이 서구의 얼굴 형과 하얗고 청순한 피부를 선호한 박수진 외(2002)의 선행 연구와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 서구문화와 매스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미의 기준을 변화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미의식별 외모 판단 시 중요한 인체 부위

구 분		미가치관				미적태도					합계	
		10 -40%	50%	60 -80%	90% 이상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외모 판단 시 가장 중요 한 부분	머리	N	2	2		2		1	1		4	
		%		2.6	.9		2.0		1.1	1.4		1.0
	얼굴	N	2	15	68	23	27	23	25	24	9	109
		%	14.3	17.9	30.8	27.1	27.0	27.5	26.9	32.4	17.6	26.9
	상체	N		1		3		2	2			4
		%		1.3		3.5		2.5	2.2			1.0
	하체	N		2	5		3	2			2	7
		%		2.6	2.3		3.0	2.5			3.9	1.8
	피부	N	1	6	16	9	8	6	5	6	7	32
		%	7.1	7.7	7.2	10.6	8.0	7.5	5.4	8.1	13.7	8.0
	키	N	1	4	6	1	3		4	3	2	12
		%	7.1	5.1	2.7	1.2	3.0		4.3	4.1	3.9	3.0
	전체적 조화	N	10	49	125	49	57	48	56	40	31	233
		%	71.4	62.8	56.1	57.6	57.0	60.0	60.2	54.1	60.8	58.3
	합계		14	79	222	85	100	81	93	74	51	40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22.176				22.183						
p		.224				.568						

5) 미의식별 외모 자신감

미의식별 외모 자신감에 대해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미가치관은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여 '미가치관 10-40%' 군에서 3.43으로 가장 외모 자신감이 가장 높으며, 미가치관 50%~90% 이상' 군은 전체 2.83~2.91로 나타났다. 이는 미에 대한 가치가 낮은 군 일수록 자

신의 외모에 만족하며, 미 가치관이 높은 군일 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 더욱 외모를 가꾸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 질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적 태도에서 유의 차이는 없지만 전반적인 평가에서 2.91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

<표 6> 미의식별 외모 자신감

구 분	인원 (N)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미가치관	10~40%	14	3.43	.51
	50%	79	2.89	.53
	60~80%	222	2.91	.65
	90%이상	86	2.83	.74
미적태도	1개	100	2.79	.61
	2개	81	2.93	.75
	3개	94	3.05	.66
	4개	75	2.91	.62
	5개이상	51	2.82	.56
합계	401	2.91	.65	

■ : p<.05

6) 미의식별 외모 개선 노력에 따른 변화 정도

미적 태도는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여 대체적으로 미용관리 2~5개 경험군에서 전체 평균 4.24보다 높게 분석되어 미용 관리 경험이 많을 수록 노력에 따라 외모가 변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미가치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지만, 미적 의식이 낮은 '미가치관 10~40%'군의 4.07보다 '미가치관 90%이상' 군에서 4.23을 보여 미가치관도 높을수록 개선노력으로 외모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미의식별 외모 개선 노력에 따른 변화 정도

구 분	인원 (N)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미가치관	10-40%	14	4.07	1.00
	50%	79	4.15	.90
	60-80%	222	4.29	.74
	90%이상	86	4.23	.86
미적 태도	1개	100	4.05	.88
	2개	81	4.24	.74
	3개	94	4.35	.72
	4개	75	4.36	.80
	5개이상	51	4.45	.82
합계	401	4.24	.81	

■ : p<.05

7) 미의식별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정도

미가치관 및 미적 태도 모두 유의수준 1% 차이를 보여, 미가치관은 '90%이상'군에서 4.36으로 가장 높고, 미적 태도는 '5개 이상' 집단에서 4.39로 가장 높았다. 반면 미의식이 낮은 집단인 '미가치관 10~40%'군 (3.71)과 '미적 태도 1개'(3.96)은 전체 평균 4.07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표 8>.

즉, 미의식이 높을수록 외모의 스트레스가 높으며, 미의식이 낮으면 현재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여 외모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 엄현신(2007)에서 연구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의 영향력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특히 외모 인식 높은 39세 이하 여성과 미혼 여성, 고학력 여성 일수록 더욱 외모 스트레스 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는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8> 미의식별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정도

구 분	인원 (N)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미가치관	10-40%	14	3.71	1.07
	50%	79	3.96	.87
	60-80%	222	4.03	.70
	90%이상	86	4.36	.82
미적태도	1개	100	3.96	.83
	2개	81	3.84	.80
	3개	94	4.17	.73
	4개	75	4.15	.80
	5개 이상	51	4.39	.70
합계	401	4.07	.79	

■■ : p<.01

8) 인체 부위별 외모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해소 방법

첫째로, 인체 부위별 외모 스트레스 정도를 복수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몸무게가 1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얼굴, 하체, 피부, 복부, 상체, 키, 머리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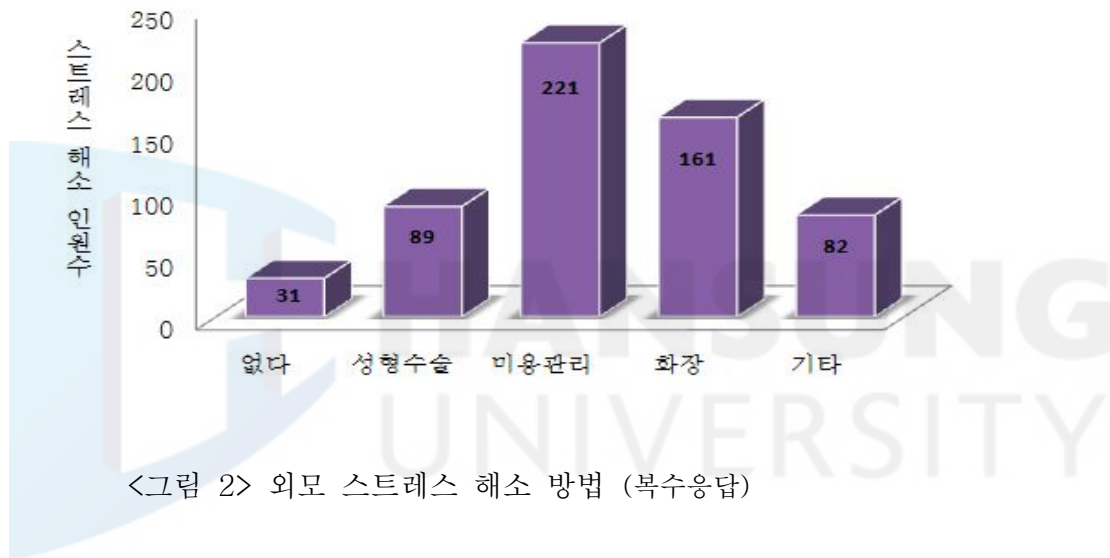
이런 결과는 <표 4> '외모를 결정짓는 요인'의 얼굴, 피부, 몸매순의 결과와 상충하듯이 연구대상자가 몸매를 결정짓는 몸무게, 하체, 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 체중조절 관심도가 높고, 얼굴·피부도 외모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므로 그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또한 높은 것이다.



<그림 1> 인체 부위별 외모 스트레스 (복수응답)

두 번째, 외모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얼굴이나 몸매(몸무게, 부분 비만)를 개선 할 수 있는 미용관리가 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기간에 얼굴, 피부를 보완하는 화장 27.6%, 영구적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성형수술 15.2%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이러한 (스트레스)결과는 정재은, 남윤자(1993)의 선행 연구 경우 운동, 음식조절, 화장을 선호 하였으나, 외모관리 행동이 다양화·세분화된 현재의 연구에서는 경제력의 향상으로 운동보다 정서적인 이완을 도와주고 편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미용 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미의식에 따른 피부에 대한 인식

1) 미의식별 피부 건강 상태 인식

미(美)가치관은 유의수준 5%차이를 보이거나 미적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美)가치관 10~40%'에서 3.21로 피부건강 만족도가 가장 높으나, '미(美)가치관 90%이상'은 2.59로 미에 대한 의식이 높으면 현재 자신의 피부에 불만족하여 피부가 건강하지 못하

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미의식별 현재 피부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구 분		인원 (N)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미가치관	10~40%	14	3.21	1.05	2.69 ■
	50%	79	2.87	.92	
	60~80%	222	2.78	.86	
	90%이상	86	2.59	.87	
미적태도	1개	100	2.72	.85	1.03
	2개	81	2.68	.86	
	3개	94	2.93	.81	
	4개	75	2.75	.95	
	5개이상	51	2.78	1.05	
합계		401	2.77	.89	

■ : p<.05

2) 미의식별 피부에 대한 관심도

미(美)가치관에서는 유의수준 1%에서 차이를 보여 '미(美)가치관 90%이상'이 4.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美)가치관 60~80%', '미(美)가치관 50%', '미(美)가치관 10~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적 태도는 유의수준 0.1%에서 차이로 '미적 태도 4개경험군'이 4.67로 가장 높으나, '미적 태도 1개경험군'은 전체 평균 4.35보다 낮은 4.08로 나타났다<표 10>.

이는 미(美)에 관심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현재 피부 상태에 대해 개선 욕구가 상승되고 그에 따라 피부의 관심도 또한 높은 것이다.

<표 10> 미의식별 피부에 대한 관심도

구 분	인원 (N)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미가치관	10-40%	14	3.86	.77
	50%	79	4.29	.77
	60-80%	222	4.32	.76
	90%이상	86	4.55	.76
미적태도	1개	100	4.08	.81
	2개	81	4.38	.77
	3개	94	4.28	.74
	4개	75	4.67	.60
	5개이상	51	4.47	.78
합계	401	4.35	.77	

■ : $p < .01$, ■■■ : $p < .001$

3) 미의식별 피부 고민

미가치관과 미적 태도별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전체적 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여드름이 41.4, 각질 16.2, 기미/주근깨 15.4, 피부색 11.4, 잔주름 9.3,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

이는 여고생의 피부고민을 선행 연구한 김현희(2001)의 여고생의 연구에서도 호르몬 영향으로 발생한 여드름(잔류 흉터, 이마, 볼 부위)에 대한 고민이 3.88로 높게 분석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인 여대생과 동일한 연구 결과를 보였다.

단, 선행 연구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여고생에 비해 여대생은 사춘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화장을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화장 행동 시 여드름, 각질, 색소침착이 불만족 요인으로 발생하여 이런 피부 불만족의 개선욕구가 고민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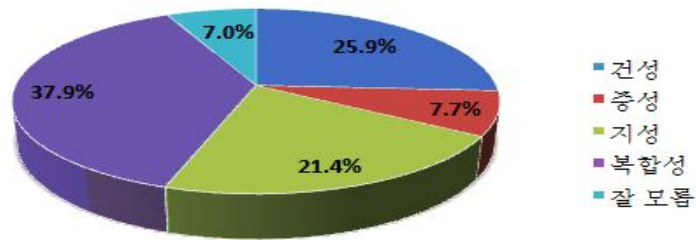
<표 11> 미의식별 피부고민

구 분		미가치관				미적태도					합계	
		10-40%	50%	60-80%	90% 이상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피부 고민	잔주름	N		8	20	9	11	5	13	5	3	37
		%		10.4	9.1	10.5	11.1	6.4	14.0	6.7	5.9	9.3
	여드름	N	6	34	88	38	45	30	35	29	22	166
		%	46.2	44.2	40.0	38.4	45.5	38.5	37.6	38.7	43.1	41.4
	기미/ 주근깨	N	1	10	37	13	10	12	17	14	8	61
		%	7.7	13.0	16.8	15.1	10.1	15.4	18.3	18.7	15.7	15.4
	각질	N	4	10	33	17	14	15	17	12	6	64
		%	30.8	13.0	15.0	19.8	14.1	19.2	18.3	16.0	11.8	16.2
	피부색	N	1	8	28	8	10	12	5	12	6	45
		%	7.7	10.4	12.7	9.3	10.1	15.4	5.4	16.0	11.8	11.4
	기타	N	1	7	14	6	9	4	6	3	6	28
		%	7.7	9.1	6.4	7.0	9.1	5.1	6.5	4.0	11.8	7.1
합계		13	77	220	91	99	78	93	75	51	40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7.562				19.066						
p		.940				.518						

4. 피부 유형 및 피부 관리 행동

1) 연구대상자의 피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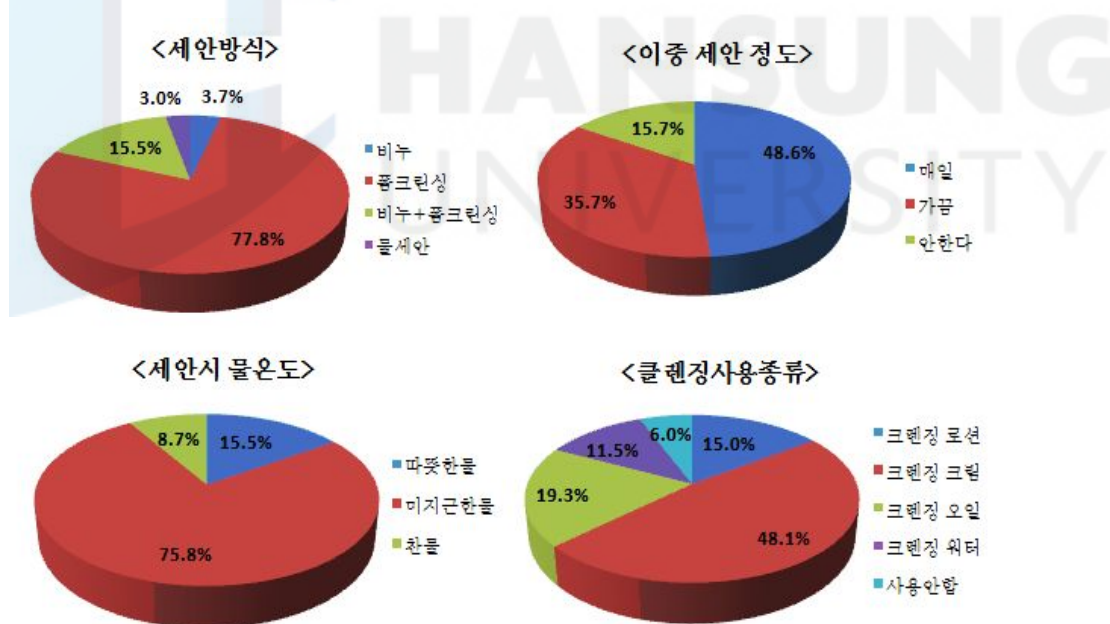
여대생들이 현재 인지하는 피부유형을 살펴보면, 총 401명의 여대생 중 복합성(152명, 37.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성, 지성, 중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자신의 피부 유형을 모르는 여대생도 28명(7%)으로 나타났다.<그림 3>



<그림 3> 연구 대상자의 피부 유형

2) 여대생의 피부 관리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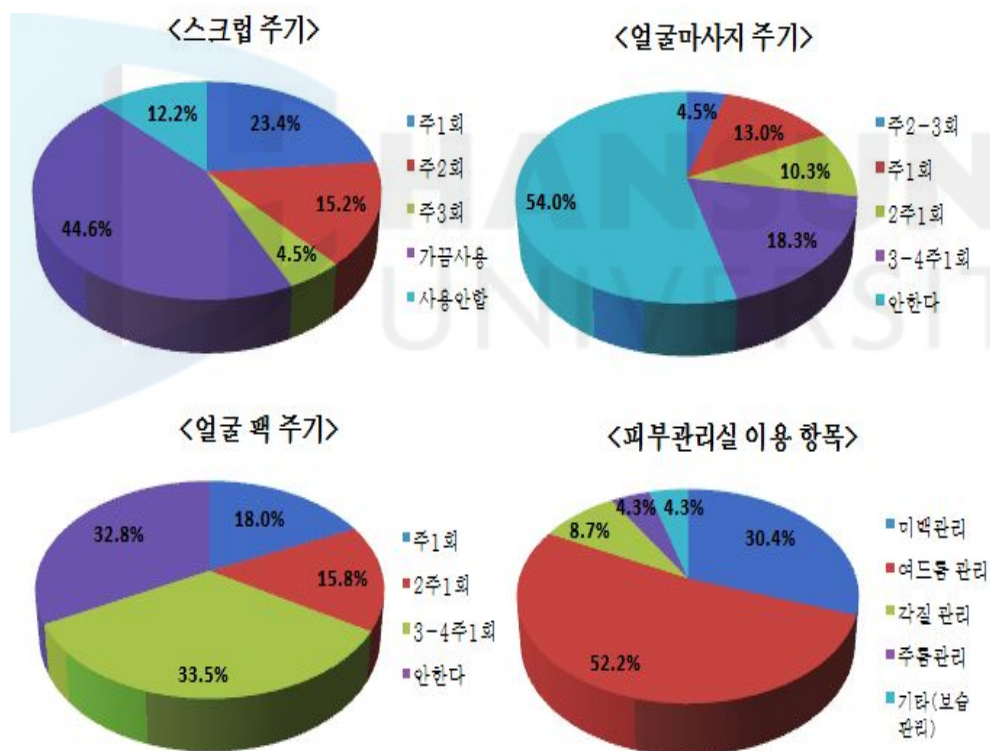
피부세안은 폼 크린싱이 77.8%로 많이 사용하며, 메이크업을 지우는 클렌징 종류의 경우 클렌징크림이 47.9%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중세안 여부는 '매일한다'가 48.6%로 가장 많았고, 세안 물 온도는 미지근한 물이 75.8%로 대부분의 여대생 94%이상이 클렌징제품을 사용하여 메이크업을 지우고, 세안 전용 세정제인 폼 크린싱을 이용하여 미온수로 매일 또는 가끔 이중세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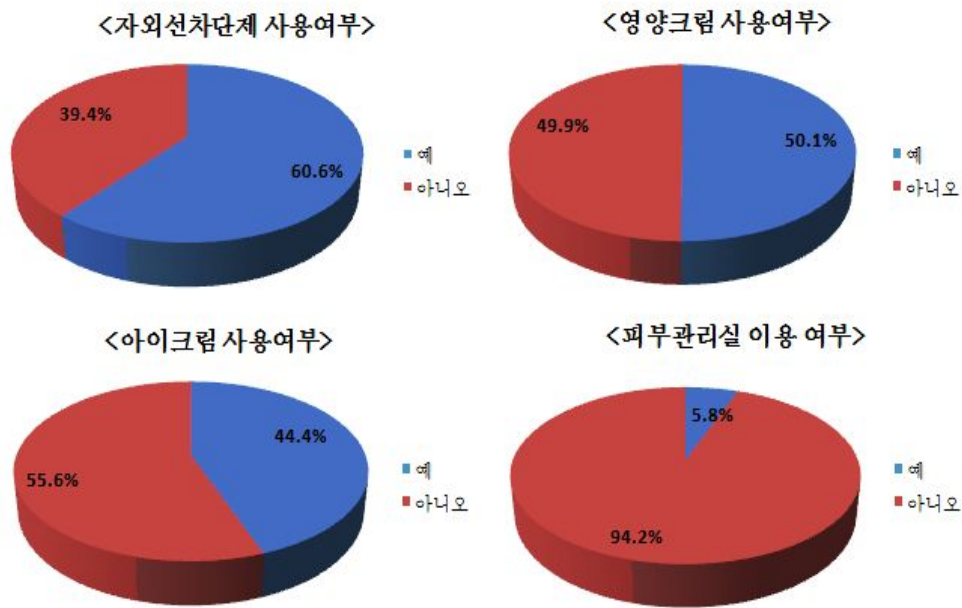


<그림 4> 피부 세안제 · 세안 관리 행동

스크립 사용 주기에서는 가끔 사용이 44.6%이며, 얼굴마사지 주기는 '안한다'가 53.9%이고, 얼굴 팩 사용주기는 3-4주1회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외선차단제 사용여부는 '예'가 60.6%, 영양크림 사용여부는 '예'가 50.1%, 아이크림 사용여부는 '아니오'가 55.6%, 피부 관리실 이용여부는 '예'가 5.2% 낮았다. 피부 관리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부 관리 항목을 조사한 결과, '여드름 관리'가 52.1%로 가장 많으며, '미백관리', '각질관리, 주름관리, 기타(보습 관리)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

이는 명은진(2000)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선행 연구한 결과와 여대생의 피부 관리 행동이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여고생, 여대생 모두 피부 중요도와 관심도는 높고, 용돈은 적어 비교적 저렴한 자외선차단제 구입 및 간단한 홈케어는 실시하지만, 피부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법인 기능성 화장품 사용, 피부 관리실 이용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5> 피부 스크럽 · 마사지 · 기능성 화장품 · 관리실 이용 행동

5. 미의식에 따른 체중 조절에 대한 인식

1) 미의식별 체중 조절 관심도

미가치관에서는 유의수준 1%로 '미(美)가치관 90%이상'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美)가치관 60~80%', '미(美)가치관 50%', '미(美)가치관 10~40%'의 순으로 나타났고, 미적 태도는 유의수준 0.1%의 차이를 보여, '미적 태도 5개 이상경험군'이 4.37로 높지만, '미적 태도 1개 경험군'의 경우 낮은 평균인 3.28을 보였다.<표 12>

이는 전라북도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연희(2001)의 대상보다 여대생이 다양한 미디어에 영향을 받고, 트렌드에 민감하여 체중 감량을 통해 보다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이 더 강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2> 미의식별 체중조절 관심도

구 분	인원 (N)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미가치관	10-40%	14	2.79	1.48
	50%	79	3.53	1.38
	60-80%	222	3.91	1.33
	90%이상	86	3.93	1.43
미적태도	1개	100	3.28	1.41
	2개	81	3.62	1.42
	3개	94	3.96	1.29
	4개	75	4.09	1.33
	5개이상	51	4.37	1.15
합계	401	3.80	1.38	

■ : $p < .01$, ■■■ : $p < .001$

2) 미의식별 비만부위에 대한 인식

미가치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미적 태도는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체적인 분포 결과는 하체가 39.7%로 높고, 복부, 전체의 순으로 상체보다는 하체비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표 13>

특히, '미적 태도 5개 이상경험군'에서 하체비만의 응답이 51.0%로 가장 높아 여대생들은 하체, 복부, 전체 비만의 순으로 비만부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 경북지역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강봉석(2006)의 연구의 복부 비만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달랐다.

그 이유 분석해 보면 첫째, 여고생의 경우 교복을 착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증가되어 문제로 인식되지만, 여대생의 경우 메스컴이나 잡지 정보 습득이 높아 요즘 유행인 미니스커트와 핫팬츠를 대부분이 착용하므로 하체 고민을 더욱 심화하여 인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미의식별 인식하는 비만부위

구 분		미가치관				미적태도					합계	
		10－ 40%	50%	60－ 80%	90% 이상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비만 부위	상체	N	2	10	11	3	2	5	11	3	5	26
		%	14.3	12.7	5.0	3.5	2.0	6.2	11.7	4.0	9.8	6.5
	하체	N	4	34	84	39	39	27	36	31	26	159
		%	28.6	43.0	37.7	43.0	39.4	33.3	38.3	41.3	51.0	39.7
	복부	N	2	13	53	15	24	21	19	14	5	83
		%	14.3	16.5	23.6	17.4	23.2	25.9	20.2	18.7	9.8	20.7
	전체	N	1	11	43	17	11	15	16	17	13	72
		%	7.1	13.9	19.5	19.8	11.1	18.5	17.0	22.7	25.5	17.9
	비만아님	N	5	11	31	14	24	13	12	10	2	61
		%	35.7	13.9	14.1	16.3	24.2	16.0	12.8	13.3	3.9	15.2
합계			14	79	222	86	100	81	94	75	51	40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17.57				30.53■					
p			.129				.015					

■ : $p < .05$

3) 미의식별 체중조절 이유

미의식별 체중 조절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미가치관에서 유의수준 5%로 차이를 보여 체중조절 이유를 '외관상 이유(외모가 아름다워지기 위해)'라고 응답한 여대생 집단은 미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인 '미가치관 60~80%'군(88.7%)과 '미가치관 90%이상'군(88.%)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적 태도는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전체 분석결과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외관상 이유라는 응답이 83.3%로 가장 높아 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외모를 위해 체중 감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진(1997), 최은옥(1999)과 조명희(2005)의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여고생 및 20~40대 여성 또한 건강보다 외모나 몸매관리를 위한 체중조절을 실행하는 것이다.

<표 14> 미의식별 체중조절 노력을 하는 이유

구 분			미가치관				미적 태도					합계
			10－ 40%	50%	60－ 80%	90% 이상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체중 조절 노력을 하는 이유	외관상	N	6	57	197	74	75	74	81	61	43	334
	이유	%	42.9	72.2	88.7	86.0	75.0	91.4	86.8	81.3	84.3	83.3
	건강상	N	7	15	8	2	14	3	7	6	2	32
		%	50.0	19.0	3.6	2.3	14.0	3.7	7.4	8.0	3.9	8.0
	행동불편	N		3	5	4	3	1	2	3	3	12
		%		3.8	2.3	4.7	3.0	1.2	2.1	4.0	5.9	3.0
	놀림받아	N		2	5	3	2	2	1	3	2	10
		%		2.5	2.3	3.5	2.0	2.5	1.1	4.0	3.9	2.5
	기타	N	1	2	7	3	6	1	3	2	1	13
		%	7.1	2.5	3.2	3.5	6.0	1.2	3.2	2.7	2.0	3.2
합계		14	79	222	86	100	81	94	75	51	40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21.05■						8.67			
p			.050						.927			

■ : p<.05

6. 체중 조절 경험 및 체중 조절 행동

1) 연구대상자의 체중 조절 경험 유무

BMI별 유의수준 0.1%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 여대생 중 '예'라는 응답이 68.1%로 저체중을 제외한 집단에서 70~90%이하 체중조절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본 연구대상의 정상체중군(66%)의 경우 비만도는 정상이지만, '똥똥하다'고 인식하여 보다 마른 체형을 희망하는 왜곡된 인식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인 한성호(2003)와도 동일하여 여대생의 대부분이 지속적인 감량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신체 건강과 동시에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15> BMI별 체중조절 경험

구 분		BMI				합계	X ²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체중조절 경험	예	N	28	195	29	21	273
		%	35.9	73.6	85.3	87.5	68.1
	아니오	N	50	70	5	3	128
		%	64.1	26.4	14.7	12.5	31.9
합계			78	265	34	24	401
			100	100	100	100	100

■■■ : $p < .001$

2) 연구대상자의 체중조절 방법

BMI별 '연고제 착용품'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전체분석 결과, '약물 복용'은 식욕감퇴제 35.2%로 가장 많았고, 지방분해제, 한약, 설사제, 기타, 이노제의 순이며, '체중조절용 식품'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이 39.3%로 가장 많았고,식이섬유, 야채효소, 기타, 해초 순이며, '식사조절'의 방법은 식사량·횟수 줄이기가 30.6%로 높게 나타났다<표 16>.

다음으로 '운동'의 경우 걷기가 34.3%로 가장 많았고, 헬스, 기타, 운동기구, 조깅, 수영, 에어로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 관리'는 '지방분해주사'가 76.7%로 가장 많았다. '연고제 착용품', '기타'방법의 경우 BMI별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여, 병문지르기가 저체중군 50%, 정상체중군 42.9%를 사용하며, 보정속옷입기는 과체중군 40%, 비만군 60%, '기타'는 찜질방을 정상체중이 73.7%로 많이 이용하였다<표 16>.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인 주석범(2003)과 안호연 외(1995)는 식이요법 및 약물 복용만 높았으나, 본 연구는 현재 메스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습득이 원활하여 과거보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16> BMI별 체중조절 방법

구 분		BMI				합계	X ²
		저체중 N(%)	정상 N(%)	과체중 N(%)	비만 N(%)		
약물 복용	한약		9(15.0)	2(20.0)	7(46.7)	18(20.5)	22.02
	설사제	1(33.3)	6(10.0)	1(10.0)	1(6.7)	9(10.2)	
	식욕감퇴제		26(43.3)	1(10.0)	4(26.7)	31(35.2)	
	이노제		1(1.7)	1(10.0)	1(6.7)	3(3.4)	
	지방분해제	1(33.3)	15(25.0)	4(40.0)	2(13.3)	22(25.0)	
	기타	1(33.3)	3(5.0)	1(10.0)		5(5.7)	
합계		3(100)	60(100)	10(100)	15(100)	88(100)	
체중 조절용 식품	식이섬유	1(12.5)	17(27.0)	1(12.5)	3(30.0)	22(24.7)	12.40
	야채효소	2(25.0)	15(23.8)			17(19.1)	
	해초	1(12.5)	4(6.3)		1(10.0)	6(6.7)	
	다이어트 식품	3(37.5)	20(31.7)	6(75.0)	6(60.0)	35(39.3)	
	기타	1(12.5)	7(11.1)	1(12.5)		9(10.1)	
	합계	8(100)	63(100)	8(100)	10(100)	89(100)	
식사 조절	단식	6(18.8)	63(19.0)	8(18.2)	5(13.5)	82(18.4)	19.69
	식단조절	4(12.5)	54(16.3)	9(20.5)	9(24.3)	76(17.1)	
	양횡수 줄이기	6(18.8)	109(32.8)	11(25.0)	10(27.0)	136(30.6)	
	한음식 먹기	3(9.4)	17(5.1)	3(6.8)	2(5.4)	25(5.6)	
	간식 줄이기	11(34.4)	88(26.5)	12(27.3)	11(29.7)	122(27.4)	
	기타	2(6.3)	1(3)	1(2.3)		4(9)	
합계		32(100)	332(100)	44(100)	37(100)	445(100)	
운 동	걷기	13(29.5)	120(35.6)	18(31.0)	13(33.3)	164(34.3)	18.22
	조깅	6(13.6)	36(10.7)	5(8.6)	7(17.9)	54(11.3)	
	수영		6(1.8)	4(6.9)	1(2.6)	11(2.3)	
	헤어로빅		7(2.1)	1(1.7)	1(2.6)	9(1.9)	
	운동기구	7(15.9)	44(13.1)	4(6.9)	6(15.4)	61(12.8)	
	헬스	8(18.2)	80(23.7)	15(25.9)	8(20.5)	111(23.2)	
기타	10(22.7)	44(13.1)	11(19.0)	3(7.7)	68(14.2)		
합계		44(100)	337(100)	58(100)	39(100)	478(100)	
연고제 착용품	지방분해크림	2(33.3)	12(24.5)		2(20.0)	16(22.9)	21.83■
	랩으로 싸기		3(6.1)	1(20.0)	1(10.0)	5(7.1)	
	병 문지르기	3(50.0)	21(42.9)		1(10.0)	25(35.7)	
	보정속옷입기		9(18.4)	2(40.0)	6(60.0)	17(24.3)	
	기타	1(16.7)	4(8.2)	2(40.0)		7(10.0)	
	합계	6(100)	49(100)	5(100)	10(100)	70(100)	
전문 관리	지방분해주사	1(50.0)	17(85.0)	3(100)	2(40.0)	23(76.7)	6.24
	비만마사지관리	1(50.0)	3(15.0)		3(60.0)	7(23.3)	
	합계	2(100)	20(100)	3(100)	5(100)	30(100)	
기타	찜질방	4(57.1)	42(73.7)	3(60.0)	3(42.9)	52(68.4)	19.32■
	사우나	2(28.6)	13(22.8)	1(20.0)	2(28.6)	18(23.7)	
	수지침		1(1.8)		2(28.6)	3(3.9)	
	기타	1(14.3)	1(1.8)	1(20.0)		3(3.9)	
	합계	7(100)	57(100)	5(100)	7(100)	76(100)	

■ : p<.05

3) 연구대상자의 체중조절 방법의 성공 정도

BMI별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인 '체중조절용 식품'은 정상 체중군에서 3.10으로 가장 성공하였고, '식사조절'은 과체중군이 3.63으로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 관리'의 경우 저체중군에서 1.50으로 낮은 성공률을 보였다.<표 17> 하지만, 약물복용, 운동, 연고제 착용품, 기타

에서는 BMI별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BMI별 체중조절 성공정도

구 분	인원(N)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약물복용	저체중	4	2.25	2.44
	정상	45	2.96	
	과체중	9	3.22	
	비만	10	3.60	
	합계	68	3.04	
체중 조절용 식품	저체중	7	2.43	3.05■
	정상	51	3.10	
	과체중	8	2.63	
	비만	9	2.56	
	합계	75	2.92	
식사조절	저체중	22	2.86	2.93■
	정상	172	3.28	
	과체중	27	3.63	
	비만	19	3.47	
	합계	240	3.30	
운동	저체중	21	3.19	1.23
	정상	182	3.45	
	과체중	28	3.68	
	비만	20	3.55	
	합계	251	3.46	
연고제 착용품	저체중	6	1.67	1.989
	정상	39	2.54	
	과체중	6	2.83	
	비만	10	2.50	
	합계	61	2.48	
전문 관리	저체중	2	1.50	5.15■
	정상	14	3.64	
	과체중	2	3.50	
	비만	3	3.33	
	합계	21	3.38	
기타	저체중	7	2.57	.97
	정상	45	2.49	
	과체중	3	3.33	
	비만	5	2.60	
	합계	60	2.55	

■ : p<.05

4) 연구대상자의 감량체중 유지기간 · 부작용 · 좋아진 점 · 효과적인 체중 조절 방법

BMI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감량체중 유지기간'은 2-3개월이 27.9%로 가장 많았고, '체중 조절 후 부작용'은 무응답자 13명(저체중 4명, 정상체중 17명, 과체중 1명, 비만군 1명)을 제외한 총 250명을 기준으로 현기증이 41.2%, 집중력 감소 25.2%순으로 나타났다<표 18>.

이는 홍은정(1997), 최은옥(1999)의 경우 30대 여성은 부작용으로 의욕상실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19~24세의 여대생이므로 의욕 상실보다는 공부 집중력 감소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8> BMI별 감량 후 체중 유지 기간, 부작용

구 분	BMI				합계	X ²
	저체중 N(%)	정상 N(%)	과체중 N(%)	비만 N(%)		
체중 유지 기간	1주일	9(34.6)	26(13.1)	6(19.4)	2(9.5)	19.28
	1개월	5(19.2)	50(25.3)	8(25.8)	7(33.3)	
	2-3개월	5(19.2)	59(29.8)	9(29.0)	4(19.0)	
	6개월	2(7.7)	36(18.2)	2(6.5)	7(33.3)	
	1년이상	7(19.2)	24(13.6)	4(19.4)	1(4.8)	
합계	28(100)	195(100)	29(100)	21(100)	273(100)	
체중조절 후 부작용	현기증	12(50.0)	72(40.4)	15(53.6)	4(20.0)	24.86
	의욕상실	4(16.7)	32(18.0)	1(3.6)	2(10.0)	
	피부	3(12.5)	13(7.3)	1(3.6)	1(5.0)	
	집중력감소	1(4.2)	44(24.7)	9(32.1)	9(45.0)	
	불면증	2(8.3)	14(7.9)	2(7.1)	2(10.0)	
	기타	2(8.3)	3(1.7)		2(10.0)	
합계	24(100)	178(100)	28(100)	20(100)	250(100)	

'체중감량 후 좋아진 점'의 경우 무응답자 11명(저체중 4명, 정상체중 5명, 과체중 1명, 비만군 1명)을 제외한 총 262명을 기준으로 옷입는 즐거움이 42.7%로 가장 높았고, '여대생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체중조절 방법'은 무응답자 2명(정상체중 2명)을 제외한 총 271명을 기준으로 운동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9>

<표 19> BMI별 감량 후 좋아진 점

구 분		BMI				합계	X ²
		저체중 N(%)	정상 N(%)	과체중 N(%)	비만 N(%)		
체중감량 후 좋아진점	건강	3(12.5)	23(12.1)	3(10.7)	5(25.0)	34(13.0)	6.37
	자신감	6(25.0)	58(30.5)	9(32.1)	5(25.0)	78(29.8)	
	활동쉬움	4(16.7)	20(10.5)	2(7.1)	2(10.0)	28(10.7)	
	매력적	2(8.3)	7(3.7)	1(3.6)		10(3.8)	
	옷입는 즐거움	9(37.5)	82(43.2)	13(46.4)	8(40.0)	112(42.7)	
합계		24(100)	190(100)	28(100)	20(100)	262(100)	
자신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체중조절 방법	약물복용		6(3.1)	2(6.7)	1(4.8)	9(3.3)	8.96
	체중조절용 식품	1(3.6)	3(1.6)		1(4.8)	5(1.8)	
	식사조절	8(28.6)	52(27.1)	8(26.7)	8(38.1)	76(28.0)	
	운동	19(67.9)	122(63.0)	19(66.7)	10(47.6)	170(62.7)	
	전문관리		10(5.2)		1(4.8)	11(4.1)	
합계		28(100)	193(100)	29(100)	21(100)	271(100)	

7. 미의식에 따른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

1) 미의식별 미의식에 따른 미용성형 인식

미적 태도는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미가치관에서는 유의수준 1%에서 차이를 보였다.

'미가치관 10-40%'군은 '표현하기 힘든 곳에 도움 되는 수술', '원하면 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응답이 각 28.6%, '필요한 사람 꼭 해야 하는

수술'에서 21.4%의 순으로 나타나 치료의 수단으로 미용 성형을 인식하고 있으며, 반면 '미가치관 50~90%'군에서는 '원하면 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20>

이러한 결과는 전북소재 남·여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미란(2004)의 남·여대생의 경우 여대생은 성형수술에 긍정적인데 비해 남대생은 비 호의적인 결과를 보여 여대생이 미와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남학생보다 민감하다는 결론을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표 20> 미의식별 미용성형의 인식

구 분		미가치관				미적태도					합계
		10-40%	50%	60-80%	90%이상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미용 성형 의 인식	표현힘든 곳	N	4	28	86	32	39	29	28	35	150
	도움되는 수술	%	28.6	35.1	38.5	37.2	39.4	36.3	30.1	46.7	37.2
	원하면 할수	N	4	36	105	42	40	40	54	27	187
	있는 수술	%	28.6	45.5	47.5	48.8	40.4	50.0	58.1	36.0	46.7
	필요한 사람 꼭	N	3	12	24	11	13	11	8	10	50
	해야하는 수술	%	21.4	15.6	10.9	12.8	13.1	13.8	8.6	13.3	12.6
	별로 필요없는	N	1	2	6	6		1	1	1	9
	수술	%	7.1	2.6	2.7	6.1		1.1	1.3	2.0	2.3
	허영/사치심	N	2	1	1	1		2	2		5
	강한 사람이	%	14.3	1.3	.5	1.2	1.0		2.2	2.7	1.3
합계			14	79	222	86	99	80	93	75	40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27.27■■■				23.10				
p			.007				.111				

■■■ : p<.01

2) 미의식별 미용성형수술여부

미의식별 성형수술여부는 미가치관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미적 태도는 유의수준 0.1%에서 차이를 보여, '미적 태도 5개 이

상'인 집단에서는 '예'가 62.7%로 높게 나타난 반면, '미적 태도 1~4개'은 '아니오'가 8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박연옥(2004)이 연구한 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의향성과 수용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결과와 동일한 미의식이 높을수록 미용성형수술에 적극적 행동 의향이 나타나는 것과 같았다.

<표 21> 미의식별 미용성형수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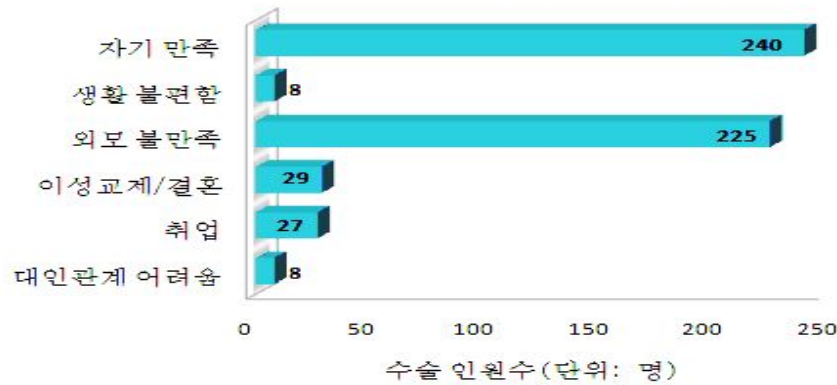
구 분		미가치관				미적태도					합계
		10-40%	50%	60-80%	90%이상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성형수술 여부	예	N 2	13	50	28	14	15	18	14	32	93
	%	14.3	16.5	22.6	32.6	14.0	18.8	19.1	18.7	62.7	23.3
	아니오	N 12	66	172	58	86	65	76	61	19	308
	%	85.7	83.5	77.4	67.4	86.0	81.3	80.9	81.3	37.3	76.8
합계		14	79	222	86	100	80	94	75	51	40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6.90				52.08■■■					
p		.075				.000					

■■■ : p<.001

8. 미용성형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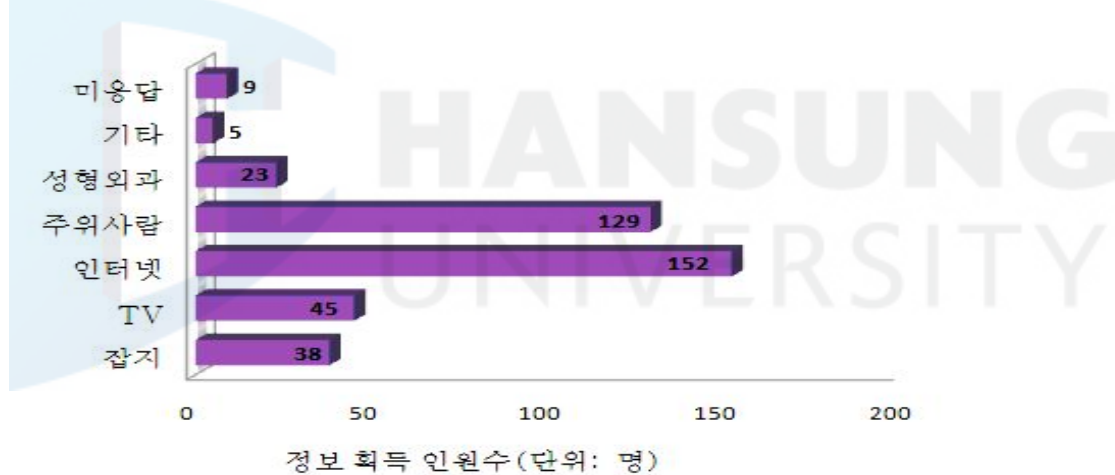
1) 여대생들의 미용성형수술 이유·정보 획득처·미용성형 영향자

첫째로 성형수술 이유에서는 '자기만족' 44.7%, '외모불만족' 41.9%로 높아 현재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성형 수술을 통해 개선하여 자기만족을 이루려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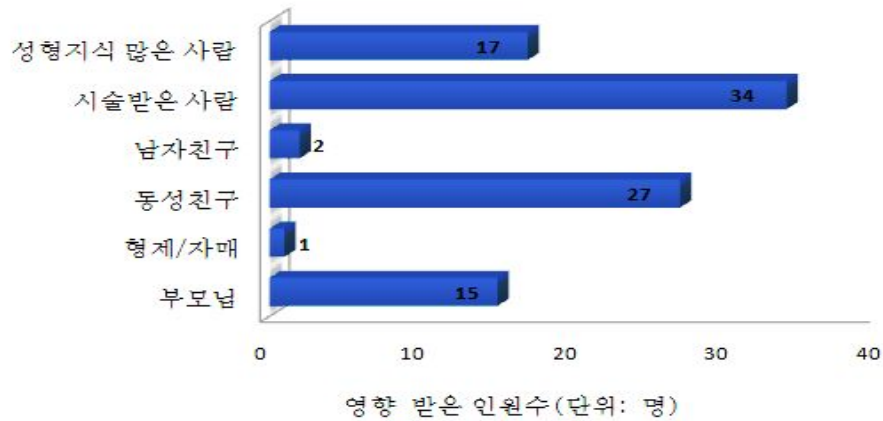
<그림 6> 미용 성형 수술 이유

두 번째로 미용성형 정보 획득처는 다량의 정보가 습득 가능한 '인터넷'이 37.9%로 가장 많았고, 이미 성형 수술을 경험한 '주위사람'도 32.2%로 높게 나타나 타인의 수술 후 만족도나 부작용, 수술법을 간접적으로 확인 후 수술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그림 7> 미용 성형 수술 정보 획득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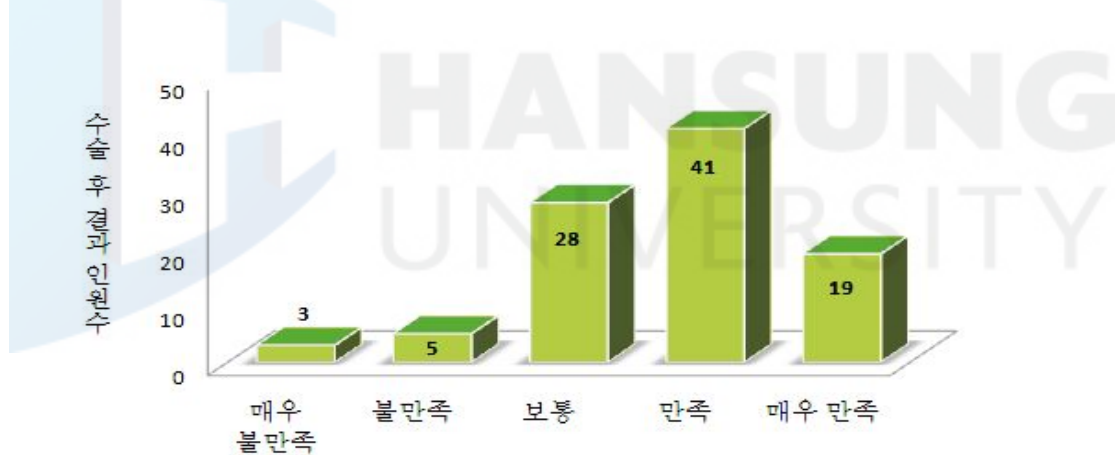
셋째로 미용성형 영향자에서는 먼저 성형을 경험 한 '시술받은 사람'이 8.5%로 가장 많았고, 동성친구, 성형지식 많은 사람, 부모님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8>.



<그림 8> 미용 성형 수술 영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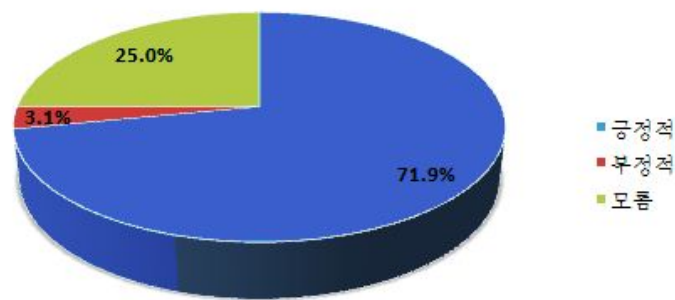
2) 여대생들의 미용성형 결과 만족도 · 성형 후 주위 반응

미용성형 결과 만족도에서는 '만족'이 10.2%로 가장 많았고, 보통, 매우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9>.



<그림 9> 미용 성형 수술 결과 만족도

미용성형 후 주위 반응에서는 긍정적이 17.2%로 가장 많았고, 모름, 부정적의 순으로 나타나 성형 수술을 경험한 응답자는 대부분이 주위의 반응이 긍정적이며, 자신 또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그림 10> 미용 성형 수술 후 주위 반응

3) 여대생들의 미용성형항목 중 한 것과 향후 하고 싶은 수술 부위

미용성형 수술의 경험 부위와 의향 부위는 <표 22>과 같다.

첫째, 눈 성형에서는 '쌍꺼풀 수술'이 20.8%로 가장 많이 하였고, 향후 하고 싶은 것에서는 '앞트임/뒷트임'이 37.8%로 가장 많았고, 쌍꺼풀 수술(35.5%), 시력교정(26.8%), 주름제거(13.3%), 눈 밑 애교(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코 성형에서는 '코 높임'이 3.5%로 가장 많이 하였고, 향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코 높임'이 55.5%로 가장 많았고, 코끝 성형(37.8%), 코 축소(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입 성형에서는 '치아 교정'이 3.8%로 가장 많이 시술 하였고, 향후 하고 싶은 것에서는 '치아 미백'이 56.9%로 가장 많았고, 치아 교정(41.1%), 입술(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피부성형에서는 '점/기미/주근깨 제거'를 2.8%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고 싶은 것에서는 '여드름 치료' 3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점/기미/주근깨 제거(34.6%), 흉터제거(30.3%), 박피술(20.1%), 주름제거(17.8%), 반영구화장(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얼굴윤곽 교정수술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항목은 '이마 성형'에서 0.3%로 나타난 반면, 하고 싶은 것에서는 '턱 윤곽 수술'이 37.6%

로 가장 많았고, 이마성형(27.1%), 광대뼈 수술(16.3%), 돌출입 수술(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유방성형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항목은 '유방 확대'가 0.3%로 나타났으나, 향후 하고 싶은 것에서는 확대가 37.3%로 가장 많았고, 처짐교정(8.5%), 함몰 유두(2.5%), 유방 축소(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지방 흡입술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항목은 '복부'에서 0.3%로 나타났으나, 하고 싶은 것에서는 '다리'가 36.3%로 가장 많았고, 복부(32.6%), 전신(27.6%), 팔(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톡스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항목은 '사각턱 교정'이 0.5%로 나타났고, 향후 하고 싶은 것에서는 '주름제거'가 23.1%로 가장 많았고, 사각턱 교정(17.5%), 다한증/액취증(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전체적인 결과는 서울 거주 20~50대 여성의 미용성형수술 의향을 선행 연구한 엄현신(2007)의 18~24세 여성들은 본 연구보다 비교적 높은 43%가 이미 눈 성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차이는 경기도에 거주 대상보다 서울지역이 성형외과가 많고,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엄현신(2007)의 선행 연구 경우 향후 수술 희망 부위로 기미/주근깨/점 제거, 치아 미백이 가장 높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치아미백, 코높임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지역 여대생의 경우 화장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잡티 보다는 외적으로 보여 지는 치아나 코에 대해 수술을 희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23> 미용성형 항목에서 한 것과 향후 하고 싶은 것

구 분		자신이 이미 한 것 N(%)	자신이 하고 싶은 것 N(%)
눈성형	쌍꺼풀 수술	83(20.8)	142(35.5)
	앞트임/뒷트임	30(7.5)	151(37.8)
	눈 밑애교		50(12.5)
	주름제거		53(13.3)
	시력교정	1(.3)	107(26.8)
코성형	높임	14(3.5)	222(55.5)
	축소	3(.8)	44(11.0)
	코끝 성형	5(1.3)	151(37.8)
입성형	입술		33(8.3)
	치아(교정)	15(3.8)	165(41.4)
	치아미백	2(.5)	227(56.9)
피부성형	점/기미/주근깨 제거	11(2.8)	138(34.6)
	여드름 치료	5(1.3)	156(39.1)
	반영구화장	6(1.5)	63(15.8)
	흉터제거		121(30.3)
	박피술		80(20.1)
	주름제거	1(.3)	71(17.8)
얼굴윤곽 교정수술	턱윤곽 수술		150(37.6)
	광대뼈 수술		65(16.3)
	이마성형	1(.3)	108(27.1)
	돌출입 수술		44(11.0)
유방성형	확대	1(.3)	149(37.3)
	축소		9(2.3)
	치짐교정		34(8.5)
	함몰유두		11(2.8)
지방 흡입술	팔		60(15.0)
	다리		145(36.3)
	복부	1(.3)	130(32.6)
	전신		110(27.6)
보톡스	주름제거		92(23.1)
	사각턱 교정	2(.5)	70(17.5)
	단한증/액취증		27(6.8)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외적인 미에 대한 추구가 왕성한 경기도 소재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미에 대한 의식과 피부, 체중조절, 미용성형의 인식과 관리 행동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첫째, 여대생들은 대부분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인 미용 관리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름다운 외모 판단 기준은 미의식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조화, 얼굴, 몸매, 피부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의식이 낮을수록 내면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부 관리 행동은 미의식이 높은 여대생일수록 피부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반면, 현재의 피부 상태에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부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저가의 제품이나 홈케어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고가의 관리 방법 보다는 이용이 간편하고, 기본적인 피부 관리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중조절 행동은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정상 체중을 보인 반면 '살이 찼다'고 인지하는 양상을 보여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체중 감량을 하는 왜곡된 체형의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미용 성형 행동은 미의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수술의 의향을 보였으며, 현재의 외모를 개선하는 수단으로 미용 성형 수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여대생들은 대부분 미의식이 높아 피부, 체중, 미용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올바른 미의식의 정립 후, 개인의 개성미에 맞는 미용 관리 행동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대생들의 바람직한 미의식의 확립과 나아가 미용 관리 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제언하고자 한다.

여대생들에게 올바른 미의식 적립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바른 미의식은 다양한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은 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실행화로 왜곡된 미의식으로 도출되는 자기 비하를 예방하고, 인간의 아름다움이 개인의 개성과 내면을 중시하는 것임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미용 서비스 업 종사자는 고객의 아름다움을 향상시키는 의견 제시의 영업적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기존의 단기간 수입에 치중한 획일화된 서비스보다 이러한 마케팅 실용화로 방문 고객과 신뢰를 발전시켜 고정고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상호 이익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미용 제품 개발자는 다양한 인구학적 구조의 미의식을 파악하여 주요 고객층을 미의식이 높은 군으로 선정할 경우 향후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봉석(2006), 「여고생의 피부관리와 비만관리 실태조사」, 남부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 신(2004), 「모델의 美的 表現藝術 研究」,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려출판사 편집부(1999), 『세계철학대사전』, 고려출판사, p.986.
- 고혜정(1996), “20대 여대생의 외제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피부 적합성 비교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2(1), pp.65-89.
- 고혜정(1996), 「흡연과 피부표면 수분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원(1998), “여대생들의 체중 조절 실태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 영양 학회지 3(1), pp.908-917.
- 김광옥 외 공저(2003), 『피부관리 이론 및 실제』, 도서출판 성하, pp.36-45.
- 김들련(1995), 「여고생의 체형 인식 차이에 따른 식생활 행동과 심리상태 비교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란 (2004),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한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인지도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복희(1998), 「여성의 피부미용관리 지식 및 행태와 관련 요인」, 경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희(2001), 「중소도시 중년기 여성의 비만도 및 비만 관련 변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1996), 「광주지역 일부 여자고등학생의 비만실태 및 비만관리방법에 관한 조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익달 외 공저(1970), 『철학과 사전』, 학원사, p.301.
- 김종대, 선진경, 최현숙(1996), 『피부관리학』, 고문사, pp.78-83.

- 김준수 역(1998), 『미학사전』, 예경, p.156.
- 김현수(1995), 「비만여성의 체중조절에 따른 효과와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백화정(1996), “남녀 대학생의 신체상의 관련된 태도에서의 차이”, 한국 여성 심리 학회지 32(1), pp.89-103.
- 류지원 외 공저(2001), 『미용학원론』, 고문사, pp.143-148.
- 류호경(1998), 「청소년기 여성의 체중 조절 행동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수진(2002), “아름다운 얼굴의 감상적 구성개념”,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5(1), pp.97-123.
- 박연옥(2004),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매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서비스 경영 전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숙(1998), 「여고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다이어트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순규(1992), 『성인병, 노인병학』, 고려의학, pp.457-473.
- 손춘영(1999), “여대생의 바람직한 체중조절을 위한 영양상담”, 한양여자대학부설 식품영양연구소 식품영양연구지, 41(3), pp.254-263.
- 신미영(1997), 「대중매체가 여성의 다이어트와 섭식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승엽(1998), 『아카데미 레닌주의 미학의 기초이론 1-3』, 일월서각, pp.49-50.
- 신효정(2002), 「현대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 화장, 헤어스타일, 신체이미지, 성형수술, 의복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정덕(2000), “비만과 심리학적 특성에 대한 고찰”, 부산대학교 비만연구소 비만학회지, 32(6), pp.869-874.
- 양경미(2002), 「여중생의 체형과 다이어트 행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숙희(2007),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의식행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2(1), pp.91-109.
- 엄현신(2007), 「얼굴에 대한 미의식과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병남(1988), 『미술교육과 미학』, 미술사학, pp.2-5.
- 오주영(1998), 「한국의 미의식에 의한 장승의 조형성 연구 : 자수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철진(1992), 『Cosmetik』, 유신문화사, pp. 56-63.
- 이규성(1980), “미의식 구조 고찰로 본 우리 도자미의 세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학술지, 11(2), pp.183-197.
- 이미희(2001), 「여성 미용 형태에 관한 연구 : 화장 및 미용 성형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헌, 장성남(1992), “표피지방과 표피장벽”, 항공우주의학, 2, pp.15-24.
- 이승헌, 안성구, 정세규(2004), 『표준 피부 관리학』, 정담미디어, pp.11-21.
- 이승헌, 황상민, 최웅호, 안성구(1999), “피부장벽”, 대한피부과학회지, 37(7), pp.825-837.
- 이연미(2003), 「고등학교 여학생의 미의식 및 미적행위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희 외 공저(2008), 『기초실무 안면 피부관리』, 광문각, pp.16-18.
- 정미숙(2000), 「여대생들의 피부 관리와 화장습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은, 남윤자(1999),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1992년도와 1997년도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3(1), pp.159-169.
- 조명희(2005), 「피부 및 비만관리실 이용자의 비만관리에 대한 의식 행태와 관련요인」,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성호(2003) , 「여대생에서 체형의 인식과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실태 및 만족정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외문헌

- Cartlidge PHT., Rutter NK., Skin barrier function. In; Polin RA, Fox WW eds.(1992), Fetal and Neonatal Physiology, Philadelphia; WB Saunders, 41, pp569-585.
- Elias PM.(1980), Epidermal lipids, barrier function, and desquamation. *J Invest Dermatol*, 80 , pp.44-49.
- Feingold KR.(1997), Permeability barrier homeostasis; its biochemical basis and regulationl, *Cosmet Toilet*, 112, pp.49-59.
- Hammarlund K, Sedan G.(1980), Transepidermal water loss in newborn infants. IV. Small for gestational age, *Acta Pediatr Scand* , 69 , pp.377-383.
- Komuves LG., Hanley K., Jiang Y. et al.(1999), Induction of selected lipid metabolic enzymes and differentiation-linked structural proteins by air exposure in fetal rat skin explants, *J Invest Dermatol*, 112, pp.303-309.
- Lee SH., Chung HS., Lee W.(1995), Epidermal lipid homeostasis, *Ann Dermatol*, 7 , pp.99-111.
- Nachman RL., Esterly NB.(1971), Increased skin permeability in preterm infants, *J Pediatr*, 79 , pp.628-632.
- Neumark-sztainer D., story, M(1998), Dieting and binge eating among adolescents; What do they really mean?, *J. Am Diet Assoc* , 19(5), pp.667-671.

- Rutter N., Hull D.(1979), Water loss from the skin of the term and preterm babies, *Arch Dis Child* , 54, pp.858-868.
- Thornhill, R., & Gangestad, S. W.(1999), *Facial attractiveness. Trends in Cognitive Science*, 3 ,pp 452-460.
- Williams ML., Hanley K., Elias PM. et al.(1998), Ontogeny of the epidermal permeability barrier, *J Invest Dermatol*, S3, pp.75-79.

홈페이지

대한 성형 학회 <http://www.plasticsurgery.or.kr>



부 록

설문지

『 여대생의 미의식에 따른 미용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

－ 피부, 체중조절, 미용성형 행동 중심으로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 여대생의 미의식에 따른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 피부, 체중조절, 미용성형 행동 중심으로』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질문 조사의 내용은 순수한 학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자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응답내용은 무기명으로 비밀에 대한 보장을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사려 깊은 답변이 매우 가치 있고 귀중한 연구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문장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3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에스테틱 전공

지도교수 : 강경호

연구자 : 이민영

I. 일반적인 특성

1. 귀하의 연령은? () 세
2. 귀하의 신장은? () cm
3. 귀하의 몸무게는? () kg
4.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형태는?
① 자취 ② 기숙사 ③ 하숙 ④ 통학 ⑤ 기타 ()
5. 귀하는 흡연을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는 음주를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귀하의 한달 용돈은?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③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④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⑤ 40만원 이상

II. 미의식에 관한 설문

1. 사람의 아름다움(美)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외모의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10% ② 10~40% ③ 50% ④ 60~80% ⑤ 90%이상
2. 귀하가 생각하는 외모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3. 전체적인 외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얼굴 ② 몸매 ③ 마음씨 ④ 피부 ⑤ 기타
4. 외모를 판단할 때,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① 머리 ② 얼굴 ③ 상체 ④ 하체 ⑤ 피부 ⑥ 키 ⑦ 전체적인 조화
5. 아름다운 외모는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III. 외모에 관한 설문

1. 귀하는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자신없다 ② 자신없다 ③ 보통이다 ④ 자신있다 ⑤ 매우 자신있다

2. 귀하는 외모가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매우 있다

3. 외모의 각 부위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V표 해주세요.

	외모의 중요성					자신의 만족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전혀 만족 하지 않다	만족 하지 않다	보통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이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얼굴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얼굴크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피부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피부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몸무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몸매(체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헤어스타일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체적인 조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의 외모 관리 행동 중 귀하가 경험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피부관리 ② 체중조절 ③ 약물복용 ④ 운동 ⑤ 미용성형 ⑥ 화장

5. 귀하는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매우 있다

5-1.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머리 ② 얼굴 ③ 상체 ④ 복부 ⑤ 하체 ⑥ 피부 ⑦ 키 ⑧ 몸무게

5-2.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없다 ② 성형수술을 한다 ③ 미용관리를 한다 ④ 화장을 한다 ⑤ 기타

IV. 피부 관리 행동에 관한 설문

1. 귀하의 피부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지 않다 ② 좋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 귀하의 피부 건강 관심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관심있다 ② 조금 관심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관심없다 ⑤ 전혀 관심없다
3. 귀하의 피부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건성 ② 중성 ③ 지성 ④ 복합성 ⑤ 잘 모른다
4. 귀하의 피부 고민은 무엇입니까?
① 잔주름 ② 여드름 ③ 기미,주근깨 ④ 각질 ⑤ 피부색 ⑥ 기타(_____)
5. 귀하의 세안 방식은 ?
① 비누 ② 폼 클렌징 ③ 비누+폼 클렌징 ④ 물 세안
6. 귀하는 세안 시 이중세안을 하십니까?
(이중세안 : 클렌징 제품으로 화장을 지운 후 세안 전용 클렌징제로 세안하는 것)
① 매일 한다 ② 가끔 한다 ③ 안 한다
7. 귀하는 세안 시 물 온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① 따뜻한물(26℃이상) ② 미지근한물(15-25℃) ③ 찬물(14℃이하)
8. 귀하가 사용하는 클렌징 종류는?
① 클렌징 로션 ② 클렌징 크림 ③ 클렌징 오일 ④ 클렌징 워터 ⑤ 사용 안함
9. 귀하의 스크럼(각질관리) 사용주기는?
① 주1회 ② 주2회 ③ 주3회 ④ 가끔씩 사용 ⑤ 사용 안함
10. 귀하의 얼굴마사지 주기는?
① 주2-3회 ② 주1회 ③ 2주 1회 ④ 3-4주 1회 ⑤ 안 한다
11. 귀하의 얼굴 팩 사용주기는?
① 주1회 ② 2주 1회 ③ 3-4주 1회 ④ 안 한다
12. 귀하는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3. 귀하는 얼굴에 영양크림을 사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4. 귀하는 얼굴에 아이크림을 사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5. 귀하는 전문 피부 관리실을 이용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15-1. 피부관리실을 이용하신다면 어떤 관리를 받으십니까?

- ① 미백관리 ② 여드름 관리 ③ 각질 관리 ④ 주름관리 ⑤ 기타(_____)

V. 체중 조절 행동에 관한 설문

1. 귀하의 체형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말랐다 ② 말랐다 ③ 표준이다 ④ 살찐 편이다 ⑤ 매우 살찐 편이다

2. 귀하는 체중조절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관심 있다 ⑤ 매우 관심이 있다

3. 귀하는 체중조절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주로 찾습니까?

- ① TV ② 신문,잡지 ③ 친구,이웃,동료 ④ 인터넷 ⑤ 기타(_____)

4. 귀하의 몸 중 비만인 부분은 어디입니까?

- ① 상체비만 ② 하체비만 ③ 복부비만 ④ 전체비만 ⑤ 비만이 아니다

5. 귀하는 체중조절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설문 VI번으로 넘어가세요)

※ 5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한 분만 체크 바랍니다.

6. 귀하는 현재의 체중이 감소되기를 원한다면 몇 kg정도 감소를 원하십니까? (_____ kg)

7. 귀하가 체중 조절을 위해 노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외관상의 이유 때문 ② 건강상의 이유 때문 ③ 행동 하기 불편해서
④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아서 ⑤ 기타

8. 귀하가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체중조절 방법은 어떤 것이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는지 해당 항목에 V표 해주세요. (사용한 방법 모두 체크해 주세요)

종 류	항 목	전혀 성공적 이지 않았다	성공적 이지 않았다	그저 그랬다	성공적 이었다	매우 성공적 이었다
① 약물 복용	한약(), 설사제(), 식욕감 퇴제(), 지방분해제() 이노제(), 기타()					
② 체 중 조절용 식품	식이섬유(), 야채효소(), 해초(), 다이어트 식품() 기타()					
③ 식사 조절	단식(), 식단조절() 식사량 및 식사횟수 줄이기() 밥 먹지 않고 한가지 음식만 먹 기(), 기타() 간식 섭취량 줄이기()					
④ 운동	걷기(), 조깅(), 수영() 에어로빅(), 운동기구사용() 헬스(), 기타운동()					
⑤ 연고제 착용품	지방분해크림(), 랩으로 감싸 기(), 보정속옷입기() 병으로 문지르기(), 기타()					
⑥ 전문 관리	지방분해주사(), 비만마사지 관리() 지방흡입수술()					
⑥ 기타	찜질방(), 사우나/한증() 수지침(), 기타()					

9. 위의 체중 조절 방법을 통해 몇 kg의 체중을 줄여 보셨습니까? (kg)
10. 감량된 체중을 유지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주일 ② 1개월 ③ 2-3개월 ④ 6개월 ⑤ 1년이상
11. 귀하는 체중 감량 후 어떤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① 어지러움, 현기증 ② 의욕상실 ③ 피부 부작용 ④ 집중력이 떨어짐 ⑤ 잠이 안온다
⑥ 기타
12. 위의 방법들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번)
13. 성공적인 체중감량을 통해 제일 좋아진 점은 무엇입니까?
① 건강해졌다 ② 만족스런 외모로 자신감이 생겼다 ③ 활동하기가 쉬워졌다
④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⑤ 옷 입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VI. 미용 성형에 관한 설문

1. 귀하께서 생각하는 미용성형이란?

- ① 피부 관리나 화장으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하면 도움이 되는 수술
 ② 자신이 원하면 할 수 있는 수술 ③ 필요한 사람은 꼭 해야하는 수술
 ④ 별로필요 없는 수술 ⑤ 허영심이나 사치심이 강한 사람만이 하는 필요 없는 수술

2. 귀하는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3. 성형수술을 했거나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 ② 취업을 위해서 ③ 이성교제나 결혼을 위해서
 ④ 평상시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⑤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⑥ 자기 만족을 위해서 ⑦ 주위의 권유로 ⑧기타()

4. 미용성형을 하고 싶는데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② 수술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③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④ 수술 전보다 더 못하게 될까봐
 ⑤ 주위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5. 미용성형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 ① 신문 ② 잡지 ③ TV ④ 인터넷 ⑤ 주위사람 ⑥ 성형외과 방문하여 ⑦ 기타

6. 다음의 미용 성형 항목 중 자신이 한 것이나 , 하고 싶은 것에 V표 하시오.

	자신이 이미 한것	자신이 하고 싶은것
눈성형	쌍꺼풀 수술(), 앞트임,뿔트임() 눈 밑에교(), 주름제거(),시력교정()	쌍꺼풀 수술(), 앞트임,뿔트임() 눈 밑에교(), 주름제거(),시력교정()
코성형	높임(), 축소(), 코끝 성형()	높임(), 축소(), 코끝 성형()
입성형	입술(), 치아교정(), 치아미백()	입술(), 치아교정(), 치아미백()
피부성형	점·기미·주근깨 제거(), 여드름 치료() 반영구화장(), 흉터제거(), 박피술() 주름제거()	점·기미·주근깨 제거(), 여드름 치료() 반영구화장(), 흉터제거(), 박피술() 주름제거()
얼굴윤곽 교정수술	턱 윤곽 수술(), 광대뼈수술(), 이마성형(), 돌출입 수술()	턱 윤곽 수술(), 광대뼈수술(), 이마성형(), 돌출입 수술()
유방성형	확대(), 축소() 치짐교정(), 함몰 유두()	확대(), 축소() 치짐교정(), 함몰 유두()
지 방 흡입술	팔(), 다리(), 복부(), 전신()	팔(), 다리(), 복부(), 전신()
보톡스	주름제거(), 사각턱 교정() 단한증·액취증()	주름제거(), 사각턱 교정() 단한증·액취증()

※ 미용 성형술을 하신 분만 체크 바랍니다.

7. 미용성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부모님 ② 형제나 자매 ③ 동성친구 ④ 남자친구 ⑤ 비슷한 시술을 받은 사람
⑥ 성형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8. 미용성형 받은 후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9. 미용성형수술 후에 주위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① 긍정적 ② 부정적 ③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모름

****본 설문지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beauty care behaviors according to aesthetic consciousness in female undergraduates

– Focusing on skin care, weight control and cosmetic surgery behavior

Lee, Min Young

Major in Beauty Esthetic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value system on beauty, skin care, weight control, and cosmetic surgery behaviors in female undergraduates who are eager to pursue of external beauty due to being ahead of advance to society.

Questionnaires of 401 female undergraduates, who are attending 3 universities in Gyeonggi Province were used as the finally analytical data. Frequency analysis, ANOVA, and crosstabulation were carried out by using SPSS ver 13.0. The following are aesthetic consciousness and beauty-care behavior in this study. First, most of female undergraduates were indicated to do the positively beauty-care behavior due to thinking that 'appearance is important.' The criterion for judging beautiful appearance was appeared that the higher aesthetic consciousness

produces the higher in importance of the whole harmony, face, body figure, and skin. Also the lower aesthetic consciousness produces that the inside beauty is more valuable. Second, the skin-care behavior was indicated that the higher aesthetic consciousness of female undergraduates leads to the higher interest in skin. They dissatisfied with their present skin condition. They prefer to low-priced products or home-cares in order to improve this skin condition. Therefore, most of female undergraduates showed the skin-care behavior, which is simple in use and is basic, rather than high-priced care method. Third, as for the weight-control behavior, most of female undergraduates thought that their weight is normal. However, showed normal weight, on the other hand, showed the aspect of recognizing them to be 'fat,' thereby having been indicated to have distorted recognition of body figure, which continuously loses weight without being satisfied at own body figure. Fourth, the cosmetic surgery behavior showed that the higher aesthetic consciousness leads to the more positive intention of surgery. A means of improving the present appearance was indicated to be desired the cosmetic surgery.

Based on the above study, most of female undergraduates are interest with in skin, weight, and cosmetic surgery very much. They desine to emprove their appearance by the cosmetis surgery.